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회보 2014년 여름 제135호

이화동창

2014년 여름 제135호

02 · **여름의 시** 새 | 임완숙
03 · **여름에 전하는 말씀** 힐링 동산 이화에서 지난 꿈 찾으시길 | 이연숙
04 · **동창의 날 행사** 20만 동창 큰 축제 이화향기 가슴에 담고
09 · **올해 이화인**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동창들
12 · **이화인 되다** 진정한 이화인으로 거듭나기위한 세례식 | 이인숙
13 · **회보 경연대회** 보는 재미 읽는 즐거움 가득한 회보 발간되기를
14 ·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해 거듭할수록 높은 호응도
21 · **축하합니다**
22 · **2014 대바자회** 우정과 사랑담고 웃음과 추억사는 알뜰 장터
26 · **기획 시리즈** 노교수와 사랑하는 제자들—동양화과
30 · **기획르뽀** '과학 이화'의 새 터전 이화 산학협력관
34 · **자랑스런 이화동창** 2014 '신사임당' 수상 김숙년 전통음식연구가
36 · **이화 유망주** 윤재신 교수가 추천한 건축학 전공 전숙희
38 · 신명수 교수가 추천한 건축공학 전공 이현주
40 · **알아두면 유익해요** 6개월 이상 '피로'지속하면 '만성피로증후군 | 심경원
42 · **생활법률 필요해요** 상속세 줄이려면 집 살 때 반드시 공동명의 하라 | 윤귀염
44 · **총동창회 소식**
46 · 제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 수상자 발표
48 · **대학 소식**
50 · **과 · 학부 소식**
55 · **국내 · 해외지회 소식**
64 · **동창소식**
68 · **모교 소식**
73 · **동창이 펴낸 새책**
76 **모교 후원금 약정서**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4년 봄 제135호 비매품 | 발행 · 2014년 7월15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2-9991
인쇄 · 독일인쇄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14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새

임완숙 *(국문 68)*

신록의 바다
출렁이는 숲 속의 세상

작고 여린 마음들이 모여
싱그런 새벽을 여는 곳

새들이
맑은 세상의 향기와 영혼을 위해
반짝이는 이슬처럼 노래한다.

우리가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르듯이
언제부터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샘물 같은 우리의 사랑, 그 황홀한 기적을
어린 꽃잎이 피어나듯 속살거린다.

뚜욱! 뚝! 푸른 물방울 돋아나는
숲 속의 세상

알 수 없는 향기로
발걸음 멈추는 곳

살아 움직이는 것들 중에서
가장 빨리 깨어난
새들이
포르릉~ 포르릉~ 허공을 가르며
금빛의 눈부신 자유를 흩뿌린다.

힐링 동산 이화 캠퍼스에서 지난 꿈 찾으시길

이연숙

교육학 57,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전 정무장관, 16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회 여성위원

올해의 봄은 세월호 참사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절기를 속절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자연은 창가에 드리운 싱싱한 초록 잎새를 흔들면서 6월이 되었다고, 여름이 왔다고, 그리고 새 희망이 열린다고 알려왔습니다.

여름은 만물을 성장하게하고, 풍요로운 가을을 약속하는 계절입니다. 금년 동창의 날에 이화캠퍼스를 둘러보았습니다. 끝물의 장미꽃과 짙은 초록색의 푸르름이 학교 다니던 시절의 추억을 오롯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1956년 5월 우리가 4학년 때였을 당시의 개교기념일 행사가 생각났습니다. 박 마리아 선생님의 부군인 정치권의 이기붕 씨가 경영하는 대구의 직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학생들에게 팔았다는 소문으로 한동안 시끄러웠던 하얀 후랏토 천에 초록색 이화 로고가 찍힌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4학년 전원이 운동장에서 전통 한국무용을 어렵사리 배워 덩실덩실 춤을 추어 화젯거리가 되었던 운동장이 이제 ECC 센터로 변신해서 편리한 공간으로 학생들을 보듬고 있었습니다.

재학 시절, 전교생이 모여 채플 시간을 가질 장소가 없어서 대학별로 나누어 예배시간을 갖던 그 시절, 우리는 대강당 건립기금 조성에 몇 학기에 거쳐서, 어렵던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에 보태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957년 2월 28일, 그 대강당에서 우리 학년 전원이 가족과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화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넉넉하게 참석한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이화 동창 여러분, 시름을 놓아주고 지난날의 푸르렀던 기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힐링의 동산, 이화캠퍼스를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한번쯤 둘러보시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친구 몇 명도 함께 청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이화가 있었기에 여성교육이 가능했고 세계만방에 우리는 여성대통령을 뽑았노라고 자랑도 하면서 이 여름, 우리의 지난 날 꿈을 다시 한 번 불러내어 다가올 가을의 성취를 기약하시라고 아름답고 화사한 이화캠퍼스를 알려 드립니다.

2014 동창의 날 행사

20만 동창 큰 축제 이화 향기 가슴에 담고

모교 창립 128주년을 맞아 5월 30일(금) 오후 2시 모교 대강당에서 총동창회 주관으로 동창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모교 윤후정 명예총장, 장명수 이사장, 김선욱 총장을 비롯하여 8월부터 총장직을 맡게될 최경희 신임 총장, 총동창회 고문 및 전 회장, 각 과와 단과대학 회장. 국내외 지회장 등 약 약 2천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한 이번 동창의 날은 〈올해의 이화인 추대〉, 〈졸업 30주년, 50주년 동창 재상봉〉, 〈회보 경연대회〉 등이 열렸다. 금년은 '세월호 참사' 로 〈합창제〉를 열지 않았으며 〈올해의 이화인 추대〉도 가무와 축하공연을 생략하였다. 아래 글은 졸업 후 처음 이 날 행사에 참석한 동창의 눈으로 본 스케치이다.(편집자 주)

1 윤후정 명예총장과 졸업50주년 재상봉 동창 대표 윤순자 동창 2 왼쪽부터 총동창회 최명숙 장의순 전 회장, 윤순희 김순영 고문 3 올해의 이화인 오찬 4 회보 경연대회 시상

학창시절 되돌아본 동창들 내년에 다시 만나기를 기약

지난 5월 30일(금), 늦봄이라기엔 많이 더운 날씨에 이화 창립 128주년 동창의 날 행사가 열렸다. 나라 안팎에서 속속 이화 교정에 도착한 동창들은 학생식당과 교직원 식당 등에서 총장께서 베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안부를 묻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교정을 거닐며 추억에 잠기기도 하였다.

2시 기념식을 시작하기 전 대강당 무대에선 올해의 이화인들이 무대에 앉아있는 연습이 있었는데 알고보니 세월호 참사로 금년은 전통음악과 함께 입장하지 않고 조용히 무대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금까지 이 행사의 하일라이트였던 단과대학별 합창제를 치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념식은 정시에 총동창회 김효신(의학 84) 총무의 사회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하였다. 이어서 김미순(기독 75) 총동창회 선교부장은 '이름도 없

이, 아무 존재감도 없었던 조선의 여인들이 이화를 통해 이름을 얻게 하시고, 이화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심' 에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더불어 창립 128주년을 맞은 이화의 후배들이 착함, 진실함, 의로움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간절한 영원의 기도를 올리며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의 이화가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면, 이제는 세계 속에 한국을 심는 크고 빛나는 이화가 될 터' 라면서 참석한 모든 동창들이 타임머신을 타지 않고도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화의 교정에서 추억과 우정을 나눌 수 있기를 기원했다. 특히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서 이화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모교 후원에 총동창회가 30억 원을 약정하여 모금하고 있음을 알리며 동창들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졸업 50주년(63년 12월), 30주년(84년 2월)을 맞는 동창들을 특별히 축하하는 〈재상봉 동창 행사〉가 열려 기념품을 전달하고 환영하였다. 50주년 재상봉 동창 윤순자(간호) 동창은 대표인사에서 "당시 메이데이 행사엔 해군사관학교 헬리콥터로 꽃바구니를 전달했고 이화의 소식이 흑백텔레비전 '대한뉴스' 에 나올 정도였다" 고 회고하며 감

격하였다.

30주년 재상봉 동창 이채근(생미) 동창 역시 대표인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1980년에 입학해 이런 5월의 행사를 누릴 수 없었던 불우한 시절' 을 회고하며 이화에서 배운 적극성과 성실함으로 오늘이 있어 자신의 딸에게도 적극 이화를 추천해 진정한 모녀 동창이 되었다고 하여 참석한 동창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한편 모교 김선욱 총장은 '모교소식' 을 전하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이화인상을 제시하고 '이화 글로벌 트라이앵글 시스템' 과 그에 따르는 핵심가치와 진행상황을 소개하는 등 성장하는 이화의 면면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이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이화인 추대' 는 이경옥(체육 80) 총동창회 회우부장의 진행으로 40개 과에서 '올해의 이화인' 으로 추대된 동창들이 고운 한복 차림으로 조용히 단상에 자리하여 화려한 입장의식 없이도 단상을 아름답게 빛냈다. 특히 '올해의 이화인' 40명이 일일이 호명되며 총동창회의 '올해의 이화인' 증서를 받을 때는 그 주인

1 총장초청 이화후원자 오찬 2 동창의 날 참석 동창 환영 오찬 3 파상순 올해의 이화인 대표 축하 4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 축하 기념품 전달 5 졸업 30주년 재상봉 동창 축하 기념품 전달

1 김선욱 총장 초청 다과회를 마치고 2 졸업 50주년 재상봉 동창들 3 졸업 30주년 재상봉 동창들

공들을 카메라에 담는 가족들의 모습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격년으로 시상하며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회보 경연대회〉는 유영선(신방 75)총동창회 홍보부장의 심사과정 발표를 통해 금상은 이화 교육자의 위상을 드높인 특집기획이 돋보인 초등교육과, 은상 약학대학, 동상 경영학과, 장려상 국제사무학과, 특별상에는 남가주지회 동창회보가 수상하였다.

비록 축제의 열기를 드높일 〈합창제〉가 부득이 다음 동창의 날 행사를 기약하게 되었지만, 이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동창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되어 따뜻하고 아름다웠던 하루였다.

글. 박경희(신방 90,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4 올해의 이화인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동창들

가관
박혜진

간호
권문희

경영
송경애

과교
김경화

교공
김경희

교육
김태미

국문
지선영

국제사무
박소영

도예
한희선

독문
윤현자

동양
성선옥

무용
반주은

법학
김행선

불문
정혜선

사학
윤용로

사회
김정선

생미
양영실

서양
김미옥

성악
김화연

수교
금주현

수학
나세리

식영
김혜영

신방
이인숙

심리
한정운

약학
조영희

영교
남지영

영문
정다미

외교(불어)
김다은

유교
김혜경

의직
권혜정

의학
피상순

장미
최경실

정외
정승은

제약
전양숙

조소
이종진

체육
주현경

초교
안경희

특교
강혜경

피아노
이혜정

화학
이호정

진정한 이화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례식

이인숙 (신방 8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장미과, 최경실? 내가 아는 최경실 맞니?"

지난 5월초의 어느 날, 30명이 넘는 카톡방에 난무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내 눈길을 끈 이름 하나. 대학 다니는 동안 같은 동아리 친한 친구였지만 거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친구가 올해의 이화인 단체 카톡방에 이름을 밝힌 것이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행사 사전 예행연습을 위해 모인 날에는 국문과에 다니는 또 다른 동아리 친구를 30년 만에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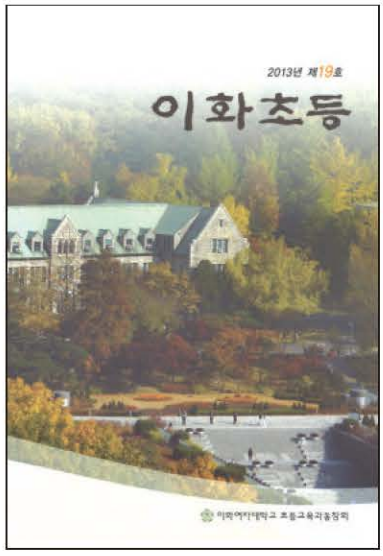
계열별로 학생을 뽑았던 1980년도에 학교를 입학한 우리는 1학년 때는 과의 구별 없이 반으로만 나눠졌고, 자연스레 같은 계열로 입학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보니 졸업 후 30년 만에 만났어도 낯이 익어 아는 얼굴들이 많았던 까닭이다. 올해가 졸업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홈커밍 기수가 되고, 우리 중 누군가를 '올해의 이화인'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나를 포함한 동기 모두는 딴 짓하기에 바빴다. 나 역시도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눈에 띄게 일가를 이룬 것도 아닌데 선배 분들에게 혹시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저어한 마음이 컸다. 결국 모교에 재직하는 탓에 선배들로부터 압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친구의 강권에 못이겨 난 신문방송학과 '올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마련해준 그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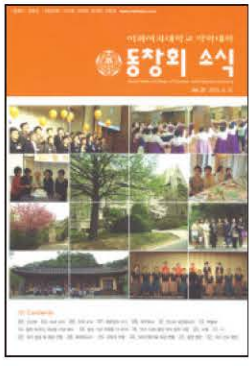
졸업 후 30년만에 처음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전히 이화인으로 지냈던 5월 30일, 모교 창립 128주년 기념식과 동창의 날 기념식. 엄마에 이어 모교에 다니는 딸과 함께 나타난 친구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하였다. 내가 아는 이화는 항상 과거에 뿌리를 두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왔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30년 동안 이화인으로 내가 받은 혜택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 내가 일과 가정에 그동안 쏟아부었던 열정과 도전정신,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등은 이화의 캠퍼스에서 나에게 녹아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강당의 무대 위에 서있던 그 때 진정 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진정한 이화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세례식이었음을.

제 8회 회보 경연대회

보는 재미 읽는 즐거움 가득한 회보 발간 되기를



금상– 초등교육과



은상 –약학대학

동상 –경영학과

장려상–국제사무학과

특별상–남가주지회

올해로 제 8회째를 맞는 동창회보 경연대회는 각 대학, 과, 대학원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고 있는 동창회보 발간을 독려하고자 지난 2000년부터 총동창회가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다. 금년에는 약학대학, 국제사무학과, 경영학과, 초등교육과, 남가주지회가 참가하였다. 예년에 비해 참가 회보 수는 많지 않았지만 1차 내부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면서 2012년에 비해 다양한 편집과 기획이 많아졌다는 데 모두 공감하였다.

심사는 동창회보로서의 특징성을 우선으로 하여 표지 디자인, 전체 편집구성, 소식과 읽을거리 배열, 사진 쓰기, 타 회보와의 차별화 등을 유념하였으며 그런 면에서 표지부터 '교육' 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특집기획을 통해 '이화 동창 교육자' 의 위상을 드높이며 보는 회보로서의 가치를 함양한 초등학과 동창회보를 금년도 금상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은상에는 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이 돋보인 약학대학을, 동상은 화보 부문을 확대하여 보는 사보로서의 기능만 추가하면 금상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수록된 경영학과 회보를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적은 페이지지만 알차게 꾸준히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 국제사무학과를 장려상으로 특별상은 변함없이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고수하는 남가주지회 회보를 선정, 시상하였다.

제 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해 거듭할수록 높은 호응도
선착순 200명 접수 3일 만에 차버려

총동창회가 젊은 동창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해 2012년에 처음 개최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벌써 3회째를 맞았다. 해마다 1년 중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5월에 열리는 이 행사는 이화동창 가족들에게 자녀와 함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아내의 모교를 온가족이 방문하게 만든 뜻깊은 하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월 17일 토요일을 맞아 10시부터 부모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대강당 앞에 모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총동창회에서 마련한 미술용품과 정성어린 점심을 한 아름 받아들고 이화 캠퍼스 곳곳에서 아름다운 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250여 명의 참가 어린이와 500여 명의 이화 가

족들이 함께 자리하여 수상자들에게 박수와 축하를 보냈다. 조종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자녀들과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교정을 거닐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이화 가족이 하나됨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수상자 및 참가자 모두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이번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호응도가 높아 금년에는 200명 선착순 마감이라고 공지하여 접수를 받자마자 3일 만에 200명을 훌쩍 넘어 하는 수 없이 250명으로 마감하여 진행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어린이들의 작품성 역시 뛰어났다.

협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주)모나미 – 최명숙(정외 57, 전 총동창회장) 동창 (주)신한화구 – 한영실(도예 83) 동창
(주)크라운해태제과 – 육명희(격영, 2012 명예졸업) 동창

심사위원(졸업연도 순)

우순옥(서양 81) 이대 조형예술대학 교수

장태옥(유교 87) 양재동 천사유치원 원장

원미진(생미 88) 이대 조형예술대학 동창회 부회장

김 선(도예 94) 이대 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심사평

천진한 동심 느낀 그림그리기 대회
이화동산에서 오래 이어지고 빛나기를

우순옥 *(서양화, 이대 서양화전공 교수)*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던 날, 이화동산은 오월 가정의 달을 실감케 했습니다. 신록 사이로 온 가족이 모여 천진하게 그림 그리는 어린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부모님과 오래전 이화를 졸업하신 할머니, 어린 동생은 나무그늘아래 단잠을 꿈꾸고, 어느새 완성한 어린이들은 맛난 도시락을 먹거나 신나게 뛰놀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대강당에서 유치부와 초등부를 구분하여 다른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놀라웠고 어눌함은 사랑스러웠으며 의젓한 표현은 기특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자연과 동물사랑, 정겨운 이화교정... 그림의 주제가 된 어린이들의 마음속 세계는 대부분 가족 중심적이었고 생태 중심적이었습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한정된 수량이 아쉬웠습니다. 이번 심사이후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렸으나 아쉽게도 상을 받지 못한 청각장애 6살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그날 저녁 그 부모님으로부터 애정어린 마음으로 쓴 어린 자녀의 장애극복과 진로상담 이메일을 받고 전 그 어린이에게 용기를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그의 천진한 12점의 그림들은 여름방학 동안 미관 교수식당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세계를 향해 열려진 순수한 눈과 마음을 지녔기에 상상력이 뛰어나고 거침이 없어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나온 결과에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십시오.

또한 사물을 잘 관찰하게 하고 좋은 책, 동화를 들려주거나 가급적 많은 여행을 통해 마음에 드넓은 포부를 가지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앞서 중요한 올바른 인성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한 그림그리기 대회가 우리 이화 동산에서 오래도록 이어지고 빛나기를 마음깊이 바랍니다.

총동창회장상 수상 유치부 김민서 어린이 가족 수상 소감

엄마에겐 소속감을 아이에겐 행복을 선물

임 경 순 *(유교 97)*

아름다운 5월의 이화교정을 아이들과 함께 처음 방문하게 된 것은 작년 2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때였습니다.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정을 거닐며 새롭게 변한 교정의 아름다움에 놀라워도 하고 남편과는 옛 추억을 되살려 보고 소풍하듯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해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림도 그려보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고 싶어서 참여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좀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듯했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아이들은 자유로워 보였고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 아름다운 교정의 여유로움과 닮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아이들은 설레임을 안고 시상식을 기다리며 맛있는 도시락과 과자를 먹으며 소풍을 만끽했습니다. 드디어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콩닥콩닥 가슴이 뛴다며 긴장한 듯했습니다. 모두 다같이 기념으로 단체사진을 찍고 시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이 불리지 않을수록 실망하며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이 눈시울을 붉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드디어 불렸습니다.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불린 "총동창회장상 김민서!"

민서도 엄마도 모두 흥분하여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상이 시작되자 민서는 장난기 가득한 평소의 얼굴은 사라지고 의젓하게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태희 누나가 더 잘 그린 것 같은데.."라며 상을 타지 못한 누나를 위로하는 대견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상을 타지 못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그림을 그려준 태희에게는 엄마아빠상을따로챙겨주었습니다. 시상식에서 민서에게 맘껏 축하해주지 못했는데 지금 민서는 "난 그림을 잘 그려."라며 자신감을 갖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기교적인 표현보다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한 순수한 그림을 인정해주셔서 민서가 자신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동창회장상 수상 초등부 강지온 어린이 가족 수상 소감

'바로 이거구나!' 이화여대에 대한 로망 찾아

김은영 (장미 99)

"엄마, 그림 그리기 대회 있으면 한번 나가보고 싶어!"

우리 집 둘째 지온이가 어느 날 뜬 금 없이 요청했습니다. 꼬마가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눈 큰 공주그리기를 무척 좋아하기는 하지만 괜시리 대회에 나가 수상을 못해 실망할까봐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총동창회에서 그림대회를 한다는 메일을 받고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이지도 않고 봄나들이하는 기분으로 5월의 이화교정을 즐길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빠랑 태이는 헤어컷하러 가고 교정에는 나와 지온이 그리고 갓 10개월된 아기 래아만이 남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래아는 잔디 위에 깔아놓은 돗자리에서 쉴 새 없이 굴러다니며 가끔씩 잡초도 뜯어 먹고(!)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온이는 그림대회 주제가 자유주제라는 것에 다소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우리 집을 그릴지 혹은 패션디자이너가 되어서 패션쇼를 하는 그림을 그릴지 한참 동안이나 이것저것을 연습장에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나는 우리 동네가 참 좋아, 우리 동네를 그려야겠다!"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결심이 서자 무섭게 후다닥 그림을 그리고 다채로운 색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후 총동창회에서 준비해준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냅킨 하나까지 예쁜 것으로 정성껏 구색을 맞춰준 것에 딸아이와 같이 감탄하며 감사했습니다. 아빠와 지온이 오빠가 오고, 온 가족이 시상식을 위해 대강당으로 갔습니다.

다수의 아이들이 수상을 하고, 사회자가 "이제 상이 단 하나 남았네요."라고 하는 순간 지온이의 아빠는 지온이에게 이미 위로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온아, 너 상 못받았다고 서운해 하지마… 친구들이 엄청 잘 그렸나봐." 그런데! 강당에서 지온이의 이름을 부르며, 축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번 대회를 통해 강지온 양은 어깨에 힘이 살짝 들어가서 도도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한 꼬마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더불어 엄마와 이모의 모교인 이화여대에 대한 로망 또한 생겼구요. 이러한 계기를 주신 총동창회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 또한 미래의 희망인 모든 아이들을 위해 나누며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졸업연도, 가나다순 게재

신인령(법학 67)동창 서울교육감 인수위원장에 위촉

이화여대 총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한 신인령 동창이 12명으로 구성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인수위원회는 조례상 7월 3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신혜수(영문 72)동창 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 선임

4월 24일 이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이며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인 신혜수 동창이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 위원에 재선되었다. 임기는 2015년부터 4년이다.

홍미영(사회 78)동창 인천 부평구청장 당선

인천 부평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을 역임한 홍미영 동창이 6.4 지방선거에서 부평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인천지역 유일의 여성 기초단체장으로 재선에 성공한 홍 동창은 앞으로 4년간 부평구청을 책임지게 되었다.

조은희(영문 84)동창 서울 서초구청장 당선

제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특보를 지낸 조은희 동창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 서초구청장에 당선되었다. 서초구 최초의 여성 구청장인 조 동창은 경향신문과 영남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한 바 있다.

최경희(과교 85)동창 이화여대 제 15대 총장으로 선출

이대 사범대학장인 최경희 동창이 임기 4년의 이화여대 제 15대 총장에 선출되었다. 8월 1일부로 취임할 예정인 최 동창은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안전행정부 지자체합동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수영(국문 88)동창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

열린우리당 여성국장과 숭실대 겸임교수를 역임한 김수영 동창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었다. 김 동창은 이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였으며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의 부인이다.

우정과 사랑 담고 웃음과 추억 사는 알뜰장터

지난 6월 12일 동창들의 교류 활성화와 총동창회 기금 마련을 위한 총동창회 대바자회가 조종남 총동창회장 주도 하에 생활환경관과 학생문화관 앞에서 개최하였다.

전날 쏟아진 비에 더욱 말끔해진 교정에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열린 대바자회는 7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이화 명물장터를 이루었다.

각 대학(원), 과, 지회 동창회 임원들은 아침 8시부터 부스에 상품을 예쁘게 진열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오후 5시까지 때이른 여름 햇빛 속에서 온종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하여 '흥겨운 장터'를 만들었다.

이 날 바자회를 찾은 동창들은 우정과 사랑이 담긴 푸짐한 봉투를 한 아름 안고 돌아갔고 바자회장 판매대도 분주함과 함박웃음 속에 하루를 보냈다.

신문방송학과

기독교학과
고사리
(지리산 직송)
200g 2만원

약학대학

특수교육과

보건교육과
빈대떡

대바자회를 마치고

이 아름다운 축제가 영원히 이어지길

이경옥 *(보건관리 70, 보건교육학과 동창회장)*

비가 온 다음날. 그래서 더욱 화창한 교정, 아름다운 교정, 그리운 교정에서 총동창회가 주관한 대바자회가 열렸다.

우리는 열흘 전부터 우리 과 주 메뉴인 빈대떡과 떡볶이를 열심히 준비했다. 이미 작년에 경험이 있는지라, 갖가지 필요한 재료와 기구들을 빠뜨리지 않고 실수 없이 준비하려 했다. 작년엔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애써 준비한 것들이 많이 남아 속상한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좋은 날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빈대떡은 12시 반에 이미 동이 났고 영천 시장으로 달려가 떡을 더 사와야 했을 만큼 떡볶이도 성공적이었다. 음식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급히 달려온 동창들과 그 맛에 감탄하는 소리에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모든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 눈 녹듯 녹아내렸고 기쁨이 충만했다.

우리는 다른 과 동창들께서도 모두 즐겁게 바자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이화 동창들의 이화 사랑, 동창 사랑 그리고 또 너그러운 이웃 사랑을 보면서 매년 열리는 이 바자회 날 을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총장님 이하 많은 교수님들의 성의 어린 방문도 참가한 모든 동창들의 성원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얻은 것은 어떤 행사든 직접 참여해야 더 학교에 애착심이 생기고 다음 총동창회 바자회도 기다려지는 게 아니가 하는 것이다. 바자회 판매 물품에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될 것 같다. 더불어 행사를 함께하는 후배와의 시간도 가지면서 선후배 간의 교류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 아름다운 이화인의 축제가 영원히 이어지길 기원한다.

바자 참여 대학(원), 과, 지회

바자당일 품목 변경 있음

인문대학
국문–퀼트제품, 소품, 스카프
중문–인견속옷, 가방, 신발, 스카프
영문–세라믹 칼, 돋보기, 안경
기독–풍기인견, 고사리, 떡
불문–참기름, 들기름, 밑반찬
독문–의류
철학–의류(경방어패럴), 양파국수
사학–아나바다

사회과학대학
정외–의류(앤콜렉션)
행정–홈웨어
문정–핸드백, 의류(안나마리아)
신방–넥스젠(화장품), 오리고 코리아–헝겊주머니, 파우치
심리–티타니아코리아
사복–떡볶이, 먹거리(사회복지관)
사회–해피쿠키(유기농 빵, 과자), 커피(병 판매)
경제–(주)LG생활건강 생활용품 협찬품, 바지, 냄비세트

자연대학
수학–이광희패션(티셔츠, 상의, 소품)
물리
화학–건어물
생명–공정무역 커피–냉커피 외 음료

공과대학
KT, 의류

음악대학
피아노–덴탈케어치약, 풍기인견
관현–의류
성악–구두
작곡–나물류, 차류
한음–잡화(턱받이 외)
종음–캐쥬얼 신발

조형대학
동양화–시계, 부채 등
서양화–그림, 악세사리
조소–악세사리, 소품
섬예–섬유악세사리
생미–생활도자기, 장신구
장미(환경)–녹두지짐, 음료(주스)
장미(복식)–의류, 악세사리, 패션소품, 가방
도예–속옷(무나무나), 화장품

체육대학
체육–젓갈, 김, 화장품, 잡화(썬캡, 백팩, 양산 등)
무용–악세사리

사범대학
교육–보꼬미 핸드백
유교–건강식품(발효마늘)
초교–김밥, 명란, 기증품
영교–액세서리(마리보석)
사생
교공–가방
특교–더치 커피, 오티스타(자폐아들의 그림이 들어간 물품을 만드는 회사) 제품
수교–스카프, 명란
보교–빈대떡, 떡볶이
과교–의류

법과대학

경영대학
경영–수입악세사리(쟈스민)
국제사무–생강차, 악세사리, 스카프

의과대학

간호대학
한중자연치유능력협회–발관리와 이압요법 물품, 투어마린제품 등

약학대학
생식, 비타민, 악세사리 기타 등

생활환경대학
가관–MCM 핸드백, 막스앤스팬서, 건강식품, 의류
의직–커피, 건강식품
식영–고수록(모시송편, 모시개떡)
장아찌–부추, 방풍, 민들레

대학원
난 문화협동조합

교육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아토미 화장품

국내지회
대전, 순천, 원주, 제주, 진주,청주

총동창회
정관장(인삼공사)
라빈스(악세사리), 모시모자, 천연나염 머플러, 모시양말
이수유통(어포류, 견과류–아몬드, 호두)
사과반쪽–아동복,
일토스카노(올리브오일 외)
신나라 혹 달린 신발(기능성)
의류(제이콥)
을지대 프로폴리스 치약
백명물산–편백나무베게, 건강차, 홈패션
SS토탈패션 의류
서울 YWCA

노교수의 회상

이화에서 축복받은 28년 삶 고마움을 작품 기증으로

오용길
이대 동양화과 명예교수

2012년 2월에 학교에서 정년퇴임했다. 1984년 3월에 조교수로 발령 받은 지 28년만이다. 상투적 표현이지만 세월이 빨리도 지나갔다. 살같이 빨리 간 세월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맥없이 세월만 흘려보내지는 않았다.

수도여자사범대학 전임교수로 교수생활을 시작해 6년 후에 이화여대 교수로 부임하던 시절, 명문 이화여대 교수가 되었다는 기쁨, 거의 배로 뛰어오른 봉급을 받고 기뻤던 일 들이 생각난다.

부임한지 몇 년 되지 않아 교학과장 보직을 맡아 수행하였던 일, 선배교수들의 사랑을 받던 일, 특히 입시실기시험 관리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배정받으려고 애썼던 일등은 기억이 새롭다. (그 당시는 실기시험 관리비용을 학교본부에서 배정받았다.)

28년의 교수생활 중 정점은 2005년에 학장보직 발령을 받았던 일이다. 보직을 맡자마자 학교의 체제개편이 있었다. 가정대학과 체육대학이 해체되고 미술대학과 음악대학이 합쳐 예술대학이 되는 개편작업이 진행되었다. 당연히 미대와 음대 동창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계속되었다.

음대에서는 교수들의 반대도 대단했다. 이 때문에 동창들과 잦은 회동, 미대 교수들과의 잦은 회의로 마음 쓰이는 일이 많았다. 결과적으로 예술대학의 출범과 미대 음대의 잠정적인 존속으로 마무리되어 본인은 미대의 학장직과 예술대학의 학장직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그 후 예술대학은 이배용 총장의 취임 후 없던 일로 되었다. 그때 일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세상 일이 인간의 예측이나 바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28년을 이화의 울타리 속에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다. 이에 본인의 작품 31점을 학교에 기증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증 작품은 학교박물관에서 2015년 1월까지 전시되고 있다.)

오늘도 나는 그리고 싶은 그림을 아무걱정 없이 그릴 수 있는 행복한 삶에 감사하며 작업실에서 화폭과 마주하고 있다.

제자들의 이야기

공평무사(公平無私), 중용지도(中庸之道)

임 서 령 *(85년, 목원대 조교수)*

1학년 기초 동양화 시간, 선생님께서는 새 학기 첫 시간에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이화의 교정 어느 곳이든 가서 자연물을 '사생' 하라 하셨다. 3시간 가량의 방목이었다.

당시 입시미술로 인하여 겨우내 골방과 같은 화실에 갇혀 정물화와 석고 뎃상만 파던 우리들로서는 다소 생경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화교정의 봄 풍경은 얼마나 다채롭던가. 지금도 스케치북 첫 페이지에 4B로 그렸던 목련화가 남아 있다. 선생님의 작품처럼 그림은 현장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담는 것임을 세월이 흐른 뒤에 깨달았다.

이후 선생님을 나의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기까지 지내온 30여 년 동안 오용길 교수님은 그 많은 제자들의 단체전까지 우리들의 전시를 외면하신 적이 없다. 십 수년 전, 동료개인전 오픈에서 몇 사람이 선생님 곁에 둘러서서 담소하다가, 어쩌면 그렇게 일일이 찾아가주시는가 감탄하며 여쭈었더니 "이게 다 품앗이인 걸." 하시며 소탈하게 웃으신다. 어찌 그저 품앗이일까. 그 말씀에 담긴 뜻, 실천으로 보이시는 성실한 제자 사랑을 그 분의 제자라면 그 누가 모르랴. 그 걸음걸음 마다 행적으로 보여주시는 사랑에 고개가 숙여질 뿐이다.

또 선생님은 한 번도 제자인 나에게 무얼 좀 해 달라고 당부하신 적이 없으시다. 누구를 지목하여 불러 당신 일을 시키시는 일이 없으셨다. 교육자로서 그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없으신 분, 지인들 가운데서도 당신의 의지를 드러내며 누구를 힘들게 하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쩌면 그렇게 중도를 걸으실까. 지금 교단에 서게 된 내게도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은사님의 뒤를 따르는 공평무사와 중용지도라 생각한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은 못되어도 청출어청(靑出於靑)은 되어야 할 텐데 말이다.

내게는 사람을 색깔로 기억하는 버릇이 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무색의 맑은 샘물이 떠오른다. 항상 신선하고 건강하며 투명한 샘물. 그래서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바로 우리 선생님이 보이는가 보다.

새로운 도전 가르쳐준 영원한 멘토

안 성 의 *(86년, 남부지방찰청 청소년상담위원)*

오용길 선생님께서 기증하신 작품전시회인 이화

박물관 특별 기증전 '마음을 머무는 풍경전' 은 나의 생각과 감정들을 샘솟게 하는 전시이다. 오용길 선생님은 우리의 전통적인 화법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조형적 실험과 주제적 탐구를 통해 끊임없이 현대 한국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작가이고 특히 이 전시회에서 나타난 '이화동산에 머물다' 는 이화 동산의 추억이 깃들고 이화인의 사연 있는 건물과 이화의 사계절의 풍경으로 구성된 작품들이 이화에 기증 되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이화인들이 감동받을 것이다.

학부 때나 졸업 후 지금까지 크나큰 가르침과 새로운 도전을 주셨던 선생님, 나의 첫 개인전에서도 붓을 놓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화가로서 스승으로서의 오용길 선생님의 모습은 과거에도, 청소년을 상담하는 현재에도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나에게 멘토가 되신다. 퇴임 후 과천현대미술관 한국화 강의로 바쁜 나날을 보내는 선생님으로 인하여한국화단은 상당히 발전할 것이다.

작품 통해 계속 스승 만나며 긍지를

기 유 경 *(88년)*

2012년 교수님의 정년퇴임 자리는 이제까지의 어느 행사보다 많은 동창들이 함께 했다. 아직도 청년 같으신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 진정한 예술인이셨던 교수님이셨기에 동창들은 더욱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1984년. 같은 해에 교수님과 나는 이화동산의 가족이 되었다. 거의 30년을 곁에서 뵈면서 느낀 것은, 작품에서도 나타나듯이 교수님은 누구보다도 성실하시고 단정하시며 한결같으신 분이라는 것이다. 대학원 수업을 받을 때에도 수업시간에 늦으시거나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으셨고, 동양화의 전통을 지키시면서 새로운 노력을 하시는 모습은 존경스러움 그 자체였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화교정을 사랑하셔서 교내 곳곳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주신 덕분에, 우리는 작품을 통하여 교수님과 계속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음에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며, 언제나 청년 같으신 교수님을 우리는 계속 응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열성팬을 가지고 계시는 멋쟁이 교수님께서 건강한 모습과 좋은 작품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교육자와 예술가의 성공적 삶은 제자들이 가야할 이정표

서 은 애 *(93년, 이대 조형예대 동양화전공 교수)*

선생님과의 인연은 올 해로 25년째이다.

그 긴 기간 동안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으셨다.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성실함을 바탕으로 교육자와 예술가로서의 이중적 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 역시 선생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뒤이어 걸어가고 있는 입장에 놓여보니 교육자와 예술가의 삶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고, 이제 선생님께서 남기신 모든 족적은 앞으로 내가 걸어 가야할

오용길 명예교수의 기증전이 열리고 있는 이대 박물관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왼쪽부터 기유경(88), 이숙진(85), 전미향(08), 임서령(85), 안성의(86) 동창, 오용길 명예교수, 서은애(93), 정혜정(98), 성인제(99), 이경희(98) 동창.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작품에 대해 평가해 주실 때 허언(虛言) 하시는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항상 분명한 논거를 들어 그림에서 또는 작업에 임하는 태도에서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쾌하게 지적하셨다.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간결하면서도 정곡을 꿰뚫는 날카로움은 분명 교육자로서 또 예술가로서 축적된 많은 경험들로부터 획득된 깊이 있는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선생님의 이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남다르셨다. 28년의 재직 기간 동안 이화의 아름다운 정경을 담은 그림들을 여러 점 그리셨고 이 그림들은 2차례나 이화의 공식 기념달력으로 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는 퇴임을 하시며 31점의 작품을 이화여대 박물관에 기증을 하셨는데, 이 작품들 중에는 선생님의 화업(畵業)의 흐름 위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을 수 있는 귀한 1970년대의 대표작 4점이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ECC의 신축으로 인해 과거의 추억 속으로 아스라이 사라진 학교의 운동장, 박물관 앞의 정원풍경 등 이화의 옛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진 작품들도 기증작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은 그 자체로도 이화의 역사기록물이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퇴임하신 후 한층 더 밝아지신 표정으로 예술창작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꽃피우시는 모습을 뵙고 있으면 한 편으로는 선생님께서 그 동안 느끼셨을 교육자로서의 삶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었음을 실감하게 되고, 다른 한 편으론 이제 진정으로 원하시던 자유로운 예술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된 앞으로의 나날들에 더 큰 기대와 진정어린 박수를 보내게 된다.

세계 최고 최초 지향, 우리 모교 이화여대 탐색 다섯 번째

'과학 이화'의 새 터전, 제2의 '마담 퀴리' 육성하는

이화산학협력관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이 난을 통해 동창들이 모교를 찾아 자주 발걸음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지난 4월 2일 봉헌식을 마치고 5월 14일 '과학 이화'의 비전을 세우고 개관하여 대한민국 미래과학을 선도할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있는 산학협력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장대비가 퍼붓던 여름 초입, 본교 대강당 근처에서 출발한 순환버스는 배차시간에 맞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차에 오른 재학생과 연구원으로 가득 찼다. 교정 곳곳에서 이들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안개와 빗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산학협력관.

산학협력관은 지난 2012년 5월 31일 안산 자락에 첫 삽을 뜬 지 이태 만인 2014년 4월 2일 봉헌식을 마치고 지난 5월 14일 '과학 이화'의 비전을 세우고 개관하였다. 총 57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산학협력관은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5,833㎡

규모로 이화-솔베이 연구센터를 비롯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서부센터와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 뇌융합과학연구원 등이 입주해 있다.

한국 대학 최초 글로벌 산학협력 체결 첫 사례의 결실

"이화가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로서 연구와 산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제2의 마담 퀴리를 키우기 위한 이화의 선포입니다."

지난 5월 30일 대강당에서 열린 동창의 날 행사에서 김선욱 총장은 이화의 핵심가치를 동창들에게 소개하며 과학 분야에서 이화가 꿈꾸고 설계하는 미래와 비전을 담아 산학협력관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 대학 최초로 글로벌 산학협력을 체결한 첫 사례가 이화-솔베이 간 협력으로 새로운 산학협력의 모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60명 규모의 화학신소재 공학부를 개설해 솔베이와 기술 · 연구개발 분야에서 공동협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과학 이화' 의 핵심 인프라를 담당하게 될 산학협력관은 나노, 바이오, 의약 융복합 기초연구와 기술개발의 기반이 되는 첨단,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어 융합연구를 위한 최상의 연구 플랫폼을 만들었다. 특히 국내 최초로 탄소, 인을 비롯한 다양한 핵자기 신호 측정이 가능한 연구전용 3.0TMRI 장비를 설치해 뇌과학 분야에서 최적의 연구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제2의 마담 퀴리 육성 위해 다양한 지원

2011년 세계적인 화학종합그룹인 솔베이와 국내 대학 최초로 총 2,150만 달러 규모의 산학협력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화 산학협력관이 태동되었다. 솔베이는 제2의 마담 퀴리 육성을 위해 '솔베

이 장학금' 과 이화-솔베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화의 과학분야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화와 솔베이는 차세대 실리콘전지 개발 등 다양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 동안 다양한 채널로 파트너십 기회를 모색하던 장 피에르 클라마듀 솔베이 회장은 우수한 인재풀과 과학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화여대가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되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고려대에 센터가 생긴 지 20년 만에 서울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모교에 유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서부센터는 약학, 나노화학 분야에 특화한 연구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질 높은 연구지원과 분석 서비스로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창업 꿈꾸는 재학생, 동창 활발한 참여 기대하는 창업보육센터

모교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는 2012년 중소기업청의 건축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억 원을 수주해 만들어져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신생벤처기업을 보육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매달 심사를 통해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주 대상자를 뽑는데 현재는 7개 정도 기업이 입

주해 있다.

그 중 반 정도는 이화동창이다. 디자인, 태교미술, 부모교육 등 문화컨텐츠 분야가 많다. 3인 이내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다. 창업자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세무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케팅 등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모교의 창업프로그램을 가져가서 활용할 정도로 창업관련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고 신효숙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장은 말한다.

"재학생들 관심이 무척 높습니다. 창업 교과목을 매 학기 두과목씩 개설해 운영 중인데 올해는 이론반과 실전반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창업 동아리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길 만큼 학생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굉장합니다."

창업 전 동아리 운영에 연 1백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수진은 창업 컨설팅과 실제 창업한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모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교과목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만큼 재학생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직업을 보는 마인드와 인생관까지도 바뀌었다는 반응이 많다.

앞으로 일반인 대상 창업아카데미도 열어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창업을 꿈꾸는 동창들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최상의 프로그램과 자문을 통해 창업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하는 창업보육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모교 산학협력관에 동창들의 발걸음이 활발하기를 기대해본다. 동창들의 응원과 관심이 분명히 큰 힘이 될 것이다.

글. 박경희(신방90, 이화동창 편집위원)
사진. 이화여대 홍보팀 제공

대한민국 고유 맛과 멋 알리는 김숙년 전통음식연구가

가정학과 57년 졸업
한국전통음식연구가, 전 성신여고, 창문여고 교사
KBS 한국인의 밥상, EBS 최고의 요리비결 출연
저서/ '아버지, 유채꽃이 참 고와요', '맛깔난 서울반찬'
'김숙년의 600년 서울음식', '할머니가 물려주신 요리책',
'오현에 드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서 주최한 올해의 신사임당 상(전통음식 부문)을 수상한 김숙년 (가정57)동창을 댁에서 만났다. 46회 째인 신사임당 상은 한국여성들의 귀감이 되는 분을 사임당으로 추대하여 신사임당의 덕을 기리고 있다.

댁에서 만난 김 동창은 81세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소녀의 모습이었다. 밝게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분주히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발걸음에서 4,50대 못지않은 삶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 동창은 조선의 23대 왕, 순조의 둘째 따님 복온공주의 자손이다. 어려서부터 4대가 한 집에서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 왔기에 장녀였던 김 동창은 늘 어머니의 손을 도와야 했고,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며느리로, 그리고 딸로 전해 내려오는 갖가지 식생활을 자라면서 보고, 듣고, 몸으로 익힐 수 있었다고 한다.

옛말에 '3대가 잘 살아야 맛을 알 수 있다' 고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맛을 느끼고 알아 와야 그 맛을 낼 수 있다는 말이다.

김 동창은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면서 삶을 통해 배운 우리의 전통적인 맛과 멋을 알리고자 힘써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자취를 찾기도 힘들고 그 소중함마저 잊혀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옛 조상들의 지혜를 여러 사람에게 전해 주고자 전통음식연구가로서 전통음식 전승과 후진 양성에 매진한 것이다.

6. 25 한국전쟁 때 피난 가 부산에서 1953년에 이화여대 가정과에 입학하여 영양학의 중요성을 배웠다. 의학은 건강의 이상, 즉 몸이 나빠지고 난 후에 일어

난 것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지만, 영양학은 잘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하여 사전에 건강의 이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퇴직 이후(졸업 이후 40여 년 간 중.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전통요리 연구가로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음식은 단기간에 배워 맛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조미료가 발효식품이기에,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숙성시키고,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숙성하는 것과 보관하는 방법이 힘들어 외국에 알리기가 어려워요."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음식습관을 바꾸려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Wellbeing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아 한국음식에도 관심을 가져보지만 발효시키고 숙성시켜야 하는 음식이기에 모방하여 자기네 음식으로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음식은 기본이 장맛이다.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의 염담을 맞추어야 맛이 제대로 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만드는 김치와 우리 김치는 맛이 다르다. 일본김치도 소금에 절인 배추를 사용하지만, 우리는 그 절인 배추에 젓갈을 더하여 숙성시키기에 맛은 물론 영양이 다르다.

김 동창은 풍요로운 사대부 집안에서 생활해서인지, 여유와 넉넉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을 시작하여 독거노인들에게 의류, 반찬을 나누고, 불우한 학생들을 방문하여 생필품, 밑반찬을 나누었다. 시력장애 노인들에게도 전화로 책 낭독하는 봉사를 해 왔다고 한다.

김 동창은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냉장고에서 조그만 병을 가지고 온다. 그 안에는 고추와 무말랭이를 간장에 초절임한 것이 꽉 차 있다. "젊은 사람이 이걸 먹으려나" 하면서 기자 앞으로 밀어 놓는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아찌 등을 작은 병에 만들어 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단다. 뚜껑을 열어 맛을 보니 짜지도 않고 달콤새콤하다. 과연 장인의 맛이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제철음식을 만들고, 손톱에 곱게 봉선화 꽃을 물들인 김숙년 동창은 요즈음 제2의 삶을 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사 강의도 듣고, 2년 전부터 컴퓨터를 배워 이제는 능숙하게 원고도 쓰고, 메일도 보낸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고, 또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는 것이다. 후배들에게 전해줄 이야기와 지혜를 조용히 쌓아 가면서.

글. 김경은(영문 79, 이화동창 편집위원)

교수가 추천하는 2014 이화 유망주

건축학부

이화여대 건축학부는 1994년 건축학과로 창설되었으며 2006년에 건축학, 건축공학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건축학부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호에는 건축학과 건축공학 전공의 2014 이화 유망주 두 동창을 두 분 교수의 추천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윤재신 건축학과 교수가 추천하는 2014 이화 유망주

개성 있는 건축설계 세계에 펴나갈 전숙희 소장

2011년 WISE 건축 전숙희 소장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의 현상설계에 당선되었다. 2012년 5월에 그 건물이 완공되면서, 그녀는 건축가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숙희 소장은 이미 2011년 '젊은 건축가 상' 을 수상하면서 장래가 촉망받는 신진 건축가로 한국 건축계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Princeton University의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유명한 Gwathmey Siegel 건축사무소에서 4년간의 실무를 익힌 다음, 2008년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로 건축설계의 실무를 중심으로 설계 교육과 설치예술 및 전시 등의 실험적 디자인 영역에서도 활동적이면서 인상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전숙희 소장은 이화여대 건축학과 1회 졸업생으로 당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도 이화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 그리고 건축에 대한 열정과 끈질김이 남달랐던 동기들과 함께 이화여대 건축학과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건축 형태에 대한 탁월한 시각적 재능을 바탕으로, 내적 논리에 치밀하면서도 많은 노력으로 높은 완성도의 건축설계를 선보이면서 학우들에게 귀감이 되곤 했다. 전숙희 소장의 개성 있는 건축설계 능력은 그녀의 작품을 보고, 함께 이야기해 보면 누구나 감지할 수 있다.

1998년 이화여대 건축학과의 제1회 졸업작품 평가회를 마치고나서, 당시 평가회에 참여했던 한국을 대표하는 두 명의 건축가가 각각 그녀에게 취직 제안을 했던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녀는 한국과 미국에서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건축가로 성장했다. 이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이로재 건축사무소에서 실무를 다년간 익히고 나서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녀는 한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장영철과 2001년에 결혼해서 5살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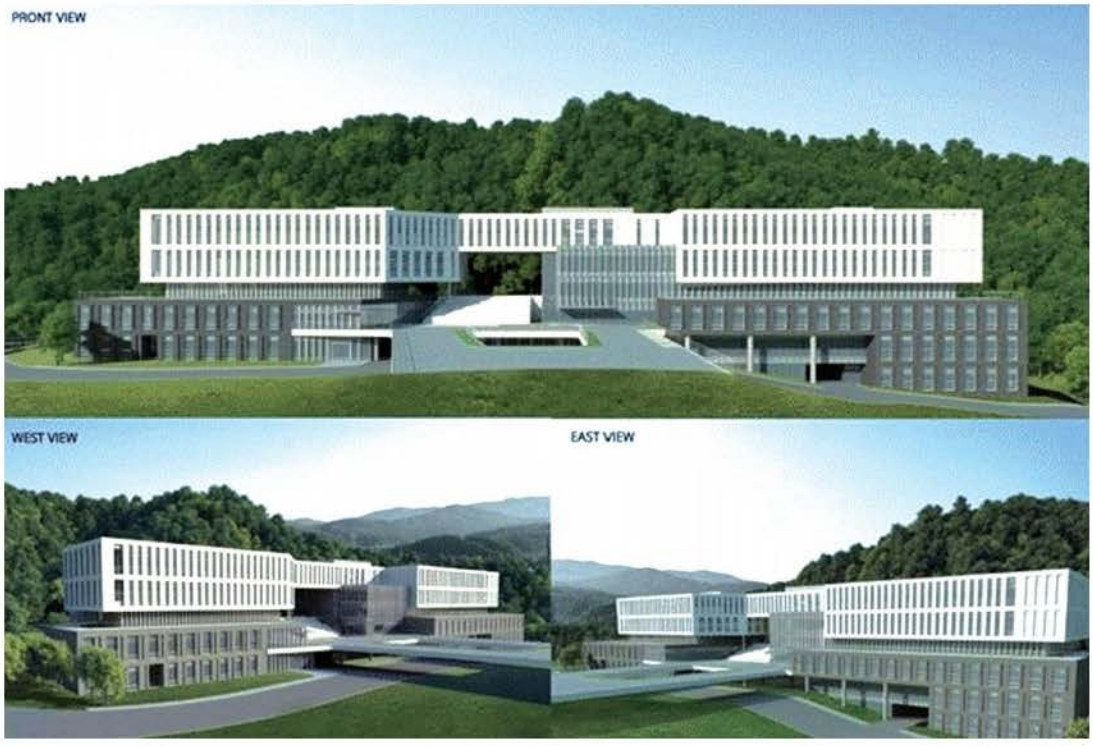
건축설계에서 전숙희 소장은 사용자의 시선과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어울리는 공간을 추구하는 기본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건축물의 장식과 구조, 재료와 공간, 용도와 표상을 아우르면서 자신의 미적 개성을 건축설계에 담으려는 그녀의 끈질긴 노력을 우리는 그녀의 최근 작품들에서 읽을 수 있다.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ABC 사옥'으로 이어지는 검정 벽돌에 대한 재료적 탐구와 다양한 근생건물의 참신한 설계에서, 우리는 일상적 건축을 통해 한국의 건축디자인 문화를 독자적으로 창출하려는 그녀의 노력과 방향을 감지할 수 있다. 이제 전숙희 소장은 불혹을 바라보는 시점에 있다. 그녀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건축가로 성장해 갈 것이다. 한국을 넘어 자신의 건축 작품을 세계에 펴나갈 전숙희 소장의 미래의 여정에 큰 성원을 보낸다.

윤재신 교수

전숙희 동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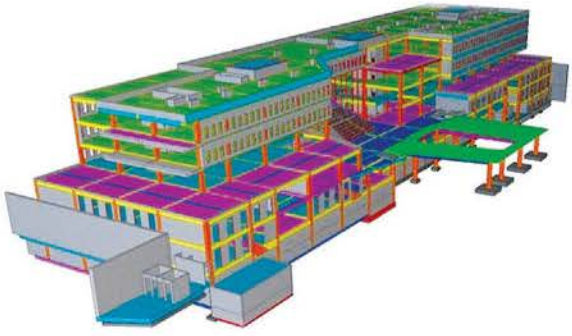
신영수 건축공학 전공 교수가 추천하는 2014 이화 유망주

IT시스템과 건축의 '융합' 실무화의 귀재 이현주



내가 생각하는 미래 유망주의 자질은 다섯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째는 부지런한 근면성이고, 둘째는 한번 결정한 것은 이루고자하는 추진력, 셋째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 그리고 넷째는 희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성취욕이며, 마지막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친화력이다.

지난 20년간 이화여대에서 만났던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건축학부에는 내가 생각하는 유망주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참 많았다. 건축학부는 유달리 과제가 많아서 밤을 새우는 날이 부지기수인데도, 학생들이 모두 부지런히 마감기한 내에 건축 설계안을 제출하고, 다들 피곤한 중에서도 동기들의 과제를 서로 봐주고 도와주던 모습들이 인상에 남습니다. 그래서인지, 건축학부 졸업생들은 지금도 여러 곳에서 많은 두각을 드러내고 있어 한



학생을 콕 집어 소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현주 졸업생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현주 졸업생은 2004년에 이화여대 건축학부에 입학하여, 4년간의 학부과정과 2년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현대건설 기획본부 정보화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맡은 업무는 건설현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장업무를 분석, 종합하여 IT를 이용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업무이다.

건축은 매우 다학문 체계를 가지고 있어 건물의 기획 · 설계 · 공사 · 유지관리 등 제반 분야에서 역사와 경제 등의 인문학적 지식과 건물의 축조와 관련된 기술적 지식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이현주 동창은 여러 기술 분야 중에서도 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IT시스템을 건축에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학문의 '융합' 을 건축실무에서 실현시키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건설 산업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IT를 이용하여 건축의 기술의 영역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야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능동적으로 탐구하여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현주 동창이 석사과정 학생으로 있었던 기간에는 당시에 새로 시작하는 대형연구가 있어 연구사업의 제안부터 협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이 있어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요즘 대화를 나누어 보면, 그 당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회사 업무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곤 한다.

지금은 졸업을 해서 국내 건설산업 분야에서 잘 나가는 건설사에 있으면서도, 종종 연구실에 찾아와서 후배들을 독려하는 역할도 해주고 있다. 이현주 동창이 머지않은 미래에 건축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는 여성엔지니어로써 우리나라와 이화를 빛낼 인재임을 믿고 있다.

신영수 교수

이현주 동창

알아두면 유익해요

6개월 이상 '피로' 지속하면 '만성피로 증후군'

심 경 원
의학93, 이화여대 가정의학과 과장
비만건강학회 공보이사, 임상영양학회 홍보이사

6개월 이상 지속되며 충분한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을 만성피로(Chronic fatigue)로 정의하며 만성피로증후군은 '지속적이고, 설명이 되지 않는 피로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과로, 수면 부족, 임신 등의 생리적 원인,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사별과 같은 정신적 원인, 각종 신체 감염과 내분비 질환, 심장-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류마티스 질환, 각종 종양 등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수없이 많으며 만성 피로 증후군은 이와 독립된 것으로서 이러한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질환이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감염, 면역기능이상, 신경내분비반응, 중추신경계이상, 근육이상, 운동능력장애, 수면패턴, 유전자소인, 성격문제, 정신과적인 기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만성 피로의 가장 많은 원인은 정신과적인 문제이다.

급성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성피로증후군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주변 상황에 의해 만성피로증후군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 만성 피로 증후군 의심하라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피로로서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고, 피로가 생겼거나 시작 시기가 명확하고, 피로가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일생동안 있었던 피로는 제외됨) 현재의 힘든 일 때문에 생긴 피로가 아니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피로가 호전되지 않고 피로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직업적, 사회적, 개인적 활동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내릴 수 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6개월 이상 매일 존재하거나 매달 재발해야 하고, 피로가 나타난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이전의 직업적, 교육적, 사회적, 개인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한 단기 기억력 장애나 집중력 장애, 인후(목구멍)의 통증, 목이나 겨드랑이에 눌러서 통증이 생기는 임파선, 근육의 통증, 종창이나 발적이 없는 다발성 관절염과는 다른 새로운 두통, 잠을 충분히 자도 상쾌하지 않은 느낌, 운동이나 일을 하고 난 후 24시간 이상 지나도 지속되는 권태감이다.

전문의의 공인된 치료법으로 치유하라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 우선 다른 내과적,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 상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며, 6개월 이상 심하게 피로를 호소하고 휴식 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심층 면담 및 진찰을 통해서 진단 할 수 있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치료는 증상의 소실, 기능회복, 사회복귀 등을 목표로 한다. 신체 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에 의한 만성 피로는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다. 전문의 처방에 의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도 피로한 증세, 신체 증상, 사회적인 역할의 수행, 대인관계 등이 현저하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 행동 치료에 대해 환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교육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공인된 치료법이다.

기타 보조적으로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등 일부 영양소가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고, 이러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치료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임상 연구 결과 피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현재까지는 치료 효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다.

생활법률 필요해요

상속세 줄이려면 집 살 때 반드시 공동명의 하라

윤 귀 염
(경영 94) 공인회계사, 동서회계법인 파트너 이사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할 때, 누구나 한번은 고민해본 사항이 있을 것이다. 바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날 '명의 즉, 소유권은 누구로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필자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첫 아파트 소유권을 남편에 넘기는 우를 범했지만 왜?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는지 세금과 관련한 항목들에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절세혜택이 되는 대상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합산 과세이기에 공동명의 시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1주택일 경우는 절세효과가 크지 않으나 2주택인 경우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종합부동산세 과표 및 세율 (주택분)

2009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억원 이하	0.5%	-
6억원~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50억원이하	1%	450만원
0억원~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 초과	2%	7,650만원

양도소득세 경우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여기에 적용되는 6~38% 누진세율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눠지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과표 및 세율

2014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만원

자, 이제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 한도로 증여세가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주택공동명의자로 원시 취득하거나 증여 받을 경우에 해당기간 한도범위 내에서 증여세 세금은 없다. 그러나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현행 세법으로는 공동명의 되어 있지 않은 주택지분에 대해서추후 상속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12억 원과 기타재산 3억 원이 있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하자.

주택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상속재산은 9억 원(주택 6억 원, 기타재산 3억 원)으로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5억 원)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가 '0' 원이다. 그러나 주택이 배우자 1인 명의로 명의자인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은 15억 원이다. 일괄, 배우자공제 10억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약 5억 원이고 상속세는 약 8천만 원이 발생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상속세 세율이 누진세율이고 재산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또한 가중하여 늘어나게 되어 있다.

상속세 과표 및 세율

2000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올해 초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1009조 2항에 대한 개정안이 이슈로 등장하였다. 배우자에게 재산의 50%를 먼저 할당한 뒤,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우자의 몫은 자녀가 1명이면 80%, 2명이면 71%, 3명이면 66%까지 대폭 늘어난다.

배우자가 먼저 받는 '선취분'의 비율은 혼인과 별거 기간을 감안해 깎을 수 있고,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유언해도 배우자의 선취분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선취분에는 상속세나 증여세도 물리지 않기로 하는 안이다.

이혼하면서 부부가 재산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취분'을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눠 갖는 개념으로 보고 배우자마저 사망하면 이를 다시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에도 비슷한 개정안이 반대여론에 부딪혀 좌초된 바 있고, 세금을 실제 물리지 않으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남은 배우자 입장에서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안이기는 하나 총상속세 증가와 가업상속을 힘들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1세대 1주택처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 부문에서 비과세 공제 혜택이 있는 부동산은 굳이 단독명의

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어 취득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절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시 취득 시에는 부부의 공동노력으로 증가된 재산이고 여러 절세 효과를 감안할 때 부부 공동명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는 영원히 피하고 싶지만 반드시 직면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 전문가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세금에 대한 지식의 차이에 있다고 말한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세금을 귀찮은 존재로 회피하기보다 친해지도록 노력해 보자.

그것이 힘들면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가들과 친하게 지내라. 일생의 한번은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총동창회 소식

대학,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

4월 16일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각 대학, 대학원 및 과, 지회 회장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김효신 총무의 사회로 진행한 이 날 간담회는 2013년도 총동창회 활동 보고 및 2014년도 사업계획 보고, 제 3회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동창의 날 행사' 등 5월에 진행하는 많은 행사와 금년에 처음 개최한 총동창회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 '제 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 6월 12일 대바자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과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작년부터 총동창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이화글로벌여성교육허브' 기금 모금의 성과를 점검하고 각 대학(원), 과 회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해외지회 동창을 위한 오찬 및 모교 캠퍼스 순례

5월 31일(토) 모교 창립일을 맞아 동창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해외 지회 동창들이 총동창회가 마련한 오찬과 모교 캠퍼스 순례를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모처럼 모교를 찾은 해외 동창들은 모교 캠퍼스 순례 전에 ECC 케세이호에서 조종남 총동창회장이 마련한 오찬회에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총동창회에서는 해외에서도 귀한 시간을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는 동창들을 위로하고 앞으로 한마음으로 화합하며 발전하는 지회를 위해 기도하였다.

오찬 후 박물관과 ECC 밸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해외지회 동창들은 모교의 발전에 기뻐하며 내년 동창의 날에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였다.

이 날 참석한 해외지회 동창은 뉴욕지회의 안미상(약학 66), 보스톤지회의 박순혜(국문 73) 이문희(작곡 77), 올랜드지회의 최구자(간호 64), 씨애틀지회의 백신자(영문 64), 세인트루이스지회의 정선주(성악 68), 남가주지회의 이승자(체육 65) 오은영(경영 71), 북가주지회의 강영자(기독 64) 제갈숙경(관현 79) 윤영신(성악 87) 홍화자(약학 65), 토론토지회의 신영봉(교공 69), 독일/오스트리아지회의 이순애(체육 80), 밴쿠버지회의 강영옥(영문 64) 동창 등이다.

정기임원회에서 다양한 행사 논의

4월 9일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지난 3월 8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신입동창 환영회 행사를 평가하고 5월에 개최하는 많은 행사 준비를 위해 논의와 협의를 하였다. 5월 7일 정기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동창의 날 행사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하여 〈합창제〉를 열지 않기로 했으며 〈올해의 이화인 추대〉도 가무와 축하공연을 생략하기로 하였다. 6월 11일 정기임원회가 총장공관 뜰에서 가진 총장 초청 임원 오찬 후에 열려 5월에 개최한 많은 행사에 대한 평가와 '대바자회' 에임원들의협조 논의가 있었다.

선교부 소식

이화창립 128주년 기념 감사찬양 예배

5월 20일 오후 5시 모교 중강당에서 열린 이화 창립 128주년 기념 감사 찬양 예배는 128년 전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 심겨진 한 알의 씨앗이 이제 이화라는 이름으로 2만 여명의 재학생과 20여만 동창들의 거대한 나무로 자랐음에 감사한 예배 시간으로 올해로 12년 째를 맞고 있다.

아래 글은 이 날 참석한 재학생 홍보은(의류 11학번) 대표학생의 참석후기이다.

이화의 128주년을 축하하는 '이화감사찬양예배'가 있었습니다. 함께 찬양드림으로 시작해서 김미순 선교부장(기독 75)의 사회와 이명경(무용 77)목사의 기도, 조종남동창회장의 성경봉독과 양명수 교목실장의 '삼중은총' 말씀을 중심으로, 본 행사를 예배로 시작한 것은 이화의 근본과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양옥경 대외협력처장의 격려사와 '스트랜튼 선생님 서거 100주기 영상'을 통해 이화의 오늘날과 지난 시간도 돌아보았습니다.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짧은 예배로 시작하여 '감사찬양'이라는 이름의 찬양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사찬양에서는 한국음악과의 아름다운 연주와 고운 목소리의 성악, 몸으로 예배하는 발레, 하사모, 법대 합창단, 횃불회, 동창 선교부의 합창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화의 각 처를 지키던 믿음의 식구들이 한 데 모인 모습은 '우리가 갈 하늘 나라가 마치 이런 모습일까' 하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128주년 감사찬양예배는 이화의 생일을 맞아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이화의 식구들을 조우하는 잔치와 같았습니다. 우리 이화의 시작이 복음 전파와 구제를 목적으로 했듯이, 2014년의 오늘과 그 다음 앞으로도 항상 처음만 같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제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 수상자 발표

총동창회가 2013년 정보통신부 신설을 기념하여 동창들의 삶을 같이 나누고, 이화의 사랑과 정신을 이어가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지난 4월 1일~8일까지 동창들의 글을 받았다.

홍보 기간이 짧았음에도 시 6편과 수필 35편 등 총 41편이 응모되었고, 예심과 본심을 거쳐 15편의 글을 시상하게 되었다. 수상자 중 4명은 미국, 2명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등 해외 동창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은 뜻밖이었다. 또한 응모를 한 동창들의 대학과 과가 대부분 다른 것도 흥미로왔다.

시상식은 9월 17일(수요일) 오후 5시 이화삼성문화회관 8층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동창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수상자 명단

총동창회장상
백복현(영문 82)
수필 '쑥개떡 찌 먹던 날'

이화사랑상
최규룡(의학 82)
수필 '회상: 안과학 교실 입국 30년차'

이화행복상
김규련(간호 72)
수필 '가을과 단풍 친구들'
이혜경(교육 83)
수필 '가슴에 품어온 마지막 작은 예배'
김연아(문정 91)
수필 ' 정전 때문에 벌어진 일 '
장희윤(교공 09)
수필 ' 사랑은 이화를 타고 '

이화우정상
김경희(영문 72)
수필 '새봄에 만난 소설 "無" '
박순혜(국문 73)
수필 '보스톤에도 그윽한 이화의 향기'
박선주(법학 73)
수필 '올해의 이화인 그 후'
이 란(신방 81)
수필 '이화에 대한 서로 다른 마음'
최영숙(건교 82)
수필 '잊을 수 없는 100불 한 장의 지폐'
임선영(의학 82)
수필 '특별한 오찬'
김영미(영문 87)
수필 '윤정옥 선생님께'
우은주(영문 90)
수필 '이화 그리고 나'
진미영(행정 93)
수필 '소중한 만남, 이화'

좋은 글 수준에 접근한 작품

백시종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우리시대의 좋은 글은 어떤 것인가. 일반적으로 내용이 참신하고 시대적 문제를 함축하고, 상황 상황을 표현하는 문체가 정확하고 아름다우며, 더불어 공감력의 음량 또한 새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깊고 넓어야, 비로써 좋은 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제1회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 대회에 응모된 글을 읽고 대체로 좋은 글 수준에 접근한 작품이 많았으며, 그래서 심사가 지루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싶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완벽히 갖춘 참으로 향기 나는 작품을 발견하고 가슴 두근거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도 '쑥개떡 쪄 먹던 날' 과 '안과학 교실 입국 30년차' 를 만난 것은 대단한 수확이었다. 특히 '쑥개떡 쪄 먹던 날' 의 작가는 4편이나 응모했는데, 그중 '그 길에 배꽃 날릴 때' 같은 갈끔한 시를 따로 음미할 수 있어서 소소한 기쁨이라면 기쁨이었다.

옛날 어려웠던 시절의 감흥을 적절히 우려 낸 '쑥개떡 쪄 먹던 날' 은 메마른 요즘 세태를 돌아보게 하는 사색의 결실이고, 이화병원 안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살아있는 '안과학 교실 입국 30년차' 역시 '이화' 만이 갖고 있는 '이화사랑' 전설을 보는 것 같아 그 감흥이 새로웠다.

구체성, 짜임새가 살아 있는 글

정우숙 *(이대 국어국문학전공 부교수)*

소설이나 드라마와 같은 허구의 작품을 창작하는 일에 비해, 수필을 쓰고 시를 쓰는 일은 수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부터 교육과정을 통해 과제의 형태로 쓸 일이 많아서인지, 특별한 창의적 능력과 천재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누구든 수필 정도는 쓸 수 있는 기분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분량의 부담감도 그리 크지 않다. 주어진 주제가 글쓴이의 경험과 밀착되어 있고, 특히 아련하고 애틋하게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글쓰기라면 어떠할까.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큰 어려움 없이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이화사랑' 동창 글짓기대회의 참가작을 읽어내려 가면서,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 일일수록 더욱 만만치 않은 작업일 수도 있다. 이화의 졸업생으로서, 더구나 '이화사랑' 이란 주제 아래, 막연한 애교심과 추억담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글을 완성할 수 없다. 신입생 시절부터 졸업 무렵까지의 기억, 그리고 졸업 이후 삶의 궤적을 열거한 후, 역시 '이화를 사랑하고 있음' 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읽는 이에게까지 그 사랑의 깊이를 전하기 어렵다.

수상작으로 뽑힌 글들은, 상대적으로 글의 구체성이나 짜임새가 살아 있는 글들이다. 수상자 분들께는 축하의 마음을, 다른 모든 분들께도 참가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린다.

대학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간호대학

회장 김진향(간호73)

정기총회 및 6회, 26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

5월 30일 간호대학 동창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헬렌관 116호에서 간호대학 제 53회 동창회 정기총회 및 6회, 26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국내외 간호현장에서 간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창들이 참석하여 만남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5월 14일에는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교수, 동창, 학생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이정애 선생님의 60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이자형 교수의 말씀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었으며, 김석선 교수님 기도로 故 이정애 선생님의 이화간호사랑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약학대학

회장 정용희(약학 75)

故 이정애 선생님 추모예배 및 정기총회

지난 3월 7일 연경(청담동)에서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임원간사회가 열렸다. 정용희 회장의 인사와 이경림 약대 학장의 학교소식이 있은 후 김순영 고문은 격려사에서 약대동창회는 선후배간 아름다운 유대, 동창간의 친목, 모교를 위한 정성이 이어져 오며 전통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조화와 화합을 이루어내고 있다고 하였다.

차영화 주홍장학회위원장, 정준순 약연후원회위원장, 신성숙 부회장이자 개국동창회장의 경과보고와 각 부의 사업보고가 있었다. 정용희 회장은 약대건축기금으로 약 11억7천만 원이 모금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각 기 간사들의 협조와 독려를 부탁하였다. 특히 46명을 후원자로 이끈 11회 장현숙 고문의 이야기와 올해 졸업 50주년, 30주년을 맞이하는 15회, 35회 기 대표로부터 기념행사 계획을 들었다.

4월 3일에는 파주에 있는 정원노인요양원 및 치매병

원(원장/13회 강혜식)을 방문, 후원금을 전달하고 약대합창단의 노래와 까투리54의 춤으로 이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5월 14일, 가평 이화수목원에서 교수, 동창, 재학생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이정애 선생님의 60주기 추모예배가 있었다.

5월 30일 간호대학 동창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헬렌관 116호에서 간호대학 제 53회 동창회 정기총회 및 6회, 26회 동창 재상봉 환영회를 진행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국내외 간호현장에서 간호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창들이 참석하여 만남의 기쁨을 나누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육대학

회장 임혜옥(체육 76)

다양한 동창회 동아리 모임 참가 안내

체육대학 동창회인 건미동창회는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에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동창들이 동아리 모임에 참여할 수 있기를 호소하고 있다.

1. 라인댄스 동아리

3~6월, 9~12월 중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시(2시간), 신체육관 홀3에서 진행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박종현 총무(무용 76, HP. 010-3289-4761)에게 하면 된다.

2. 골프 동아리

연 6회(4, 5, 6, 9, 10, 11월중), 둘째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라운딩하고 있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구교정 총무(체육 99, HP 010-8818-5641)에게 하면 된다.

3. 승마 동아리

매월 첫째주 화요일과 셋째주 금요일('일화삼금'으로 외우면 좋다), 오전 10시~12시까지 2시간동안 '휴먼 앤 홀스랜드(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진행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이영미 총무(체육 95, HP. 010-3273-0530)에게 하면 된다.

과·학부 소식

가나다 순으로 게재

가정관리학과

회장/ 이재희(69)

총회에서 신임 회장 선출

지난 2월 21일 수라온에서 동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이재희 동창이 선출되었다.

경영학과

회장/ 손향아(81)

학과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활동

올해 50주년이라는 분기점을 맞이한 경영학과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김성국 학장 이하 훌륭한 교수들의 획기적인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의욕 넘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학과 발전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창회에서도 동창장학기금 모금, CPA강좌, 비즈니스 경진대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지원과 함께 선,후배간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6월에는 홈커밍데이, 연말에는 총동창회 및 송년회 등을 통해 상호 교류와 소통에 힘을 쓰고 있다.

작년 연말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1억 동창장학기금 모금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23년간 경영학과에 재직하며 경영학과의 발전과정을 지켜봐왔던 김효근 교수가 작곡, 작사한 '이화경영의 노래' 가 그가 지휘하는 이화경영합창단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어 많은 참석자들에게 크나큰 감동을 주었다.

이화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해온 우리 동창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이화경영의 열정과 에너지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해본다.

불어불문학과

회장/ 강숙희 (74)

정기총회에서 장학금 전달과 공연 열어

4월 16일 모교 LG 컨벤션 센터에서 15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회(불문학과 동창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회 김송자 동창(대천애육원장, 2013년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자)과 아미회가 4학년 재학생 전정민에게 장학금 2백만 원을 전달하였다. 화기애애한 만남과 맛있는 오찬 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미24 중창단 (80학번 불문과 24회 동기 중창단)과 라얼후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얼후 전공 연주팀)의 공연이 있었다. 여러 연주 곡 중 아미24 중창단과 라얼후 대표 김지은 선생의 협연 '남촌'은 모두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강숙희 동창회장을 중심으로 한정숙, 유혜영 부회장, 장영은 총무, 서동민 회계, 최내경 서기를 비롯하여 장혜경 전 동창회장이 힘을 모아 좋은 행사를 만들었다.

사학과

회장/ 한혜련(75)

봄 정기답사로 충남 서산 일대 다녀와

4월 24일 충청남도 서산 일대에서 봄 정기 답사를 하였다. 이번 답사는 개심사, 마애삼존불상, 해미읍성

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화창한 날씨 속에 참가한 동창들 모두 편안하고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3월 27일과 5월 22일 각각 석란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각 기의 간사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 보고와 앞으로의 동창회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5월 간사회에서는 '올해의 이화인' 으로 26회 윤용로 동창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회학과

회장/ 김자혜(74)

제 18대 동창회 출범으로 새 임원 및 고문단 선출

5월 21일 남포면옥에서 사회학과 발전 및 동창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 18대 회장으로 김자혜(13회), 수석부회장 박숙자(14회) 오숙영(16회) 김모란(17회), 총무 엄명숙(22회), 회계 이재완(23회)을 선출하여 출범하였고 새 고문단으로 김영복(2회) 김양경(4회) 표경희(5회) 양옥남(6회) 박춘호(9회) 이근원(10회) 윤명근(11회) 최영희(12회) 김금래(14회) 동창을 선임하였다.

서양학과

회장/ 공은희(80)

재학생들 MT 후원 및 이화아트 페스티벌 개최

4월 5일 동창회에서는 재학생들의 MT 후원으로 퀴즈 준비 및 상품권을 증정하였으며 5월 27일 이화아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미대 기금 마련을 위한 석박사 과정 동창의 작품 전시 및 판매를 하여 학과 동창회의 친목 및 발전을 도모하였다

섬유예술학과

회장 김옥광(80)

사제가 함께 전시회 개최

5월16일부터 6월 8일까지 성곡갤러리 2관에서 섬유예술과 동창들로 구성된 동문전 '이화섬유-실과 바늘' 이 손정례 교수와 사제동행전을 가졌다. 1층은 회원들과 손정례 교수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손 교수의 개인 작품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은 설치작업이 보여졌다.

자수를 기본으로 하여 설치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들을 선보인 전시 오픈일에는 엄정윤 명예교수를 비롯한 조예대 오숙환 학장과 많은 교수들이 참석하였고 홍대 정경연 교수 등 자수 관련학회 대표들과 섬유관련 전시협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축하를 하였다. 동창회 회장단에서도 이효범, 탁지숙, 이명님, 김혜순, 이상복, 장영란 동창과 김옥광 동창회장 등이 참석하여 화려한 오픈식을 가졌다. 참여작가는 김선희, 장수연, 이상영, 주선경 동창 외 여러 명이다.

수학과

회장/ 김기원(81))

차기 회장단 선출 및 정기총회 열어

4월 9일 수학과 차기 신임 회장단이 선출되어 4월 14일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신입동창 환영식, 이혜숙 교수 정년퇴임 기념식 및 차기 회장단으로 선출된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의 이화인으로 t한양여자대학교 나세리 교수를 선정하였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이경숙(76)

정기총회 열고 소통상 시상

5월 13일 이화삼성문화관 8층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90여명의 동창과 안광식,

윤희중, 최선열 명예교수, 박성희 학부장을 비롯한 현직 교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였다. 이경숙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총회는 졸업 50주년과 입학 50주년을 맞은 1회, 5회 선배들을 축하하는 시간, '올해의 이화인'을 소개하는 시간,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창들께 감사패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지면서 축하의 장이 되었으며 이강원 동창(7회)의 특강과 명예교수들의 말씀으로 알찬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통상을 시상하면서 진정으로 선후배가 소통하는 자리로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명예교수들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이선자 동창의 그림에 담아 제작된 졸업 50주년 기념엽서는 두고두고 동창들이 간직할 만한 기념엽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문학과

회장/ 이정숙(77)

춘계강좌 및 신구 임원 교체식

4월 14일 맑은 날씨에 10시 30분-2시까지 140명의 동창이 모여 성신여대 융합문화 예술대학 교수며 PMC 프로덕션 송승환 회장을 초청하여 '난타기획에서 세계진출까지' 란 주제로 강연을 듣고, 점심도 함께 하며 봄을 즐겼다.

춘계강좌 후 2014년 5월로 김원정(76) 회장단이 2년의 임기를 마치고, 6월부터는 이정숙(77) 회장단이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신구 임원 교체식이 있었다.

영어교육과

회장/ 이미옥(79)

기대표 정기모임에 졸업 10주년 후배동창 초대

4월 5일 교대역 부근 '삼지천마을'에서 각 기 대표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지고 오는 9월 25일에 있을 과 50주년행사 준비 내용과 동창회 장학금 모금 현황에 관하여 협조를 구하며 활발한 회의를 가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상반기 4월 정기모임에 졸업 10주년 동창들을, 하반기 11월 정기모임에 졸업 20주년 되는 동창들을 초대하기로 결정하여, 처음으로 4월 모임에 졸업 10주년 되는 37기(00학번) 후배들을 초대하였다.

이에 김영주 외 4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담소의 시간을 가지고 동창회에 대한 소속감과 동기들끼리의 유대감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90년대 말부터는 해외어학 연수 등으로 다수의 재학생들의 졸업시기가 늦추어졌던 추세를 반영하여 '동기동창'의 개념을 종전의 졸업연도 기준에서 입학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조소과

회장/ 고원경(77)

31회 이화조각전 성황리에 마쳐

5월13일 -18일까지 조소과 동창회에서는 31회 이화조각전("Wonder-Full" 벅찬)을 서울시립경희궁 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오프닝에는 크라운해태 '락음국악단' 이 연주를 후원하였다. 퇴임교수를 비롯하여 작가, 동창들의 축하와 함께 참석한 행운권 추첨으로 참석한 모든 동창들께 작은 선물까지 증정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컴퓨터공학과

회장/ 임미숙(86)

동창회 행사로 간담회 가지고 후배 멘토링 교육

5월 24일 2014년 동창회 행사를 갖고 한국통신학과 여성위원회가 주최하는 '스마트 ICT 인터넷 사용 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간담회를 후원하여 사전행사로 진행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 환경, 인터넷 IT 기술 분야에 진출한 선배 동창들이 업무에 대한 기술적 트랜드 소개를 비롯하여 여성 전문 인력으로서의 현실적 어려움 등 다양한 주제로 스마트 ICT 인터넷 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이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모교 컴퓨터공학과 2014년 2월 졸업생과 올해 졸업예정자들은 다른 어떤 간담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정성과 선배들의 열의가 느껴지는 진정한 멘토링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남가주지회

회장/ 장계원(도서 76)

정기이사회 개최 및 동창회보 특별상 수상

3월 6일 2014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이사장 김주경)가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남가주동창회 일정 및 행사 계획 발표가 있었다. 3월 임원회에서는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에 대하여 자세한 논의와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했고, 4월 임원회에서는 골프대회 결산 보고를 했으며, 1400여 명의 동창들에게 남가주동창회보를 발송했다. 5월 임원회에서는 남가주합창단 제 10회 정기공연을 위해 준비물 등, 공연 당일 임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하고, 세세한 내부사항들을 자세히 점검했다.

한편 3월 24일 Buena Park 에 있는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개최한 제 11회 총장배 골프대회는 약 130여 명의 동창과 게스트가 참가했다.

5월 18일 제 10회 남가주동문합창단(단장 장경해/피아노 75) 정기연주회가 LA 소재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 모교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공연이 끝난 후에는 출연자들과 함께 동창, 가족, 친지들이 다과를 나누며 축하하였다.

5월 30일 모교 창립 128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거행된 총동창회 주최 회보 경연대회에서 남가주동창회보가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8년, 2012년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 수상이며 4월과 11월에 발간되어 남가주 전역에 거주하는 1400여 동창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뉴욕지회

회장/ 김기령(영문 81)

정기 동창회 열고 2년 임기 새 임원진 선출

3월 4일 맨해튼에서 정기 동창회를 열고 2년 동안 동창회를 이끌어갈 새임원진으로 최성남 이사장(약학 70), 김기령 회장(영문 81), 박영숙 부회장(경영 86) 등을 선출하였다.

4월 9일에는 임기를 새로 시작한 임원들의 간담회를 플러싱 소재 금강산에서 가졌으며 4월 11일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행사로 글로벌어린이재단(GCF) 뉴욕지부회장인 전명혜(언어학대학원 80)동창이 맨해튼 세인트 에피스코 교회에서 음악회 및 만찬으로 개최했다.

5월 21일 지역모임의 하나인 중부 뉴저지 모임이 강정임 동창 자택에서 있었다.

멜버른지회

회장/ 안수산(영문 84)

2014년 첫 모임 가지고 신입회원 환영

3월 13일 안수산 동창 자택에 모여 2014년 첫 모임을 가졌다. 각자 한 접시씩 음식을 준비하여 점심을 함께 하면서 담소를 나누었다. 이 날 처음 참석한 김상미(불문 98) 동창을 환영하며, 안수산 회장의 생활법률과 사업상 주의 하여야 할 법률 등에 관한 질의, 문답이 이어졌고, 올 한 해의 동창회 계획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누었다.

미네소타지회

회장/ 김성숙(사회 85)

두차례 정기 모임 가지고 새 임원진 선출

춥고 긴 겨울로 유명한 미네소타, 다른 해보다 유난히 많은 눈과 길고 추웠던 미네소타의 겨울 속에서도 지난 3월 22일과 아름다운 봄이 한창인 5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3월 22일 가진 첫 동창회 모임은 오랫동안 후원해 온 MAKA(MINNESOTA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이화장학금 수여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동창회 활성화에 대한 방안 논의 등이 있었다. 올해 장학금을 수여받은 학생이 하버드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비록 큰 액수는 아닐지라도 후원하는 보람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5월 31일 모임은 미네소타의 아름다운 계절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는 식목원(Arboretum)에서 야외 모임으로 가졌다. 국제민속제전(Festival of Nations/ 매년 5월초 4일 동안 미네소타 주도 세인트 폴에서 열리는 미국 내 가장 큰 다민족 문화축제) 봉사 참여 활동 보고, 국제재단 장학금 기부에 대한 논의와 함께 2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서윤순 동창회장의 뒤를 이어 새 임원단이 선출되었다.

새 임원진으로 회장-김성숙, 부회장-홍성주, 총무-김지언, 회계-박은경, 섭외-변진혜 동창 등이 선출되었다. 특히 이 날은 미네소타로 새로 이주해 처음 참석해주신 안종완 동창의 환영과, 80세 생일을 맞은 주재강 동창을 축하하는 자리를 함께 가졌다.

미네소타 동창회는 미술관과 박물관 방문, 요리실습, craft 교실, 생활정보 강연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으며 더 많은 동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북경지회

회장/ 류순영(서양화 75)

정기 동창회 후 박영선 회장 별세로 신임 회장 선출

매달 두 번째 수요일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동창회를 가지는 북경지회는 5월 14일 북경 최대의 청나라 레스토랑 '군왕부'에서 동창회를 개최하였다. 유학생 대표를 포함한 20여명의 동창들이 함께 오찬을 나누었으며, 연간 진행 보고 및 회계보고, 박영선(관현 82) 회장 연임 등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지회 모임 직후 안타깝게도 동창회를 사랑과 애정으로 지켜오던 박영선 회장이 지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5월 17일 향년 52세 별세하여 장례식과 빈소 마련, 발인 및 한국 이송 등 모든 절차에 이화 동창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6월 11일 정기모임에서 류순영(서양화 75) 동창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였으며 슬픔을 딛고 더욱더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지회

회장/ 현수정(생미 88)

상반기 마지막 모임에서 이별의 포옹

한 해의 중간을 향한 문턱인 5월 29일 2014년 상반기를 매듭짓는 이화 동창 모임이 박진경(교육공학 87) 동창 자택에서 있었다. 졸업식의 달인 5월이 오면 싱가포르를 떠나는 동창들로 동창회는 아쉬움과 섭섭함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만하다.

저녁 식사 후 현수정 회장은 싱가포르를 뒤로 하게 될 동창들과 따뜻한 포옹의 시간을 가졌고 이 시간을 빌어 지난 1년 반 동안 총무로 성심을 다해 수고해 준 김지원(불문 86)동창이 서울로 가게 되어 자신의 총무 직 사임을 전했다. 총 34명이 참석한 이번 동창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하였으며 다시한번 동

창들 간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였다.

오레곤 포틀랜드지회

회장/ 김미진(도예 79)

선후배가 함께 가족같은 지회 만들자고 약속

녹음 짙은 5월 12일 오랜만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오찬을 나눴다. 이날은 신옥숙(약학 60), 구명숙(약학 71) 대선배와 막내 오영주(성악 87)동창이 처음으로 지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자기 엄마와 동년배라고 하면서 선배라기보다 엄마같은 기분이라 말한 동창 덕분에 모두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처음으로 참석한 신옥숙 대선배는 연세에 비해 너무 곱고 아름다와서 모두 놀랐다. 취미로 시작

한 수채화를 15년 동안이나 취미반에서 다른 사람에게 지도를 한다 하여 모두가 화가라고 칭송하였더니 겸연쩍어하는 모습이 마치 소녀 같았다.

구명숙 대선배도 매번 시간이 맞질 않아 참석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참석하였고 부군 직장으로 2년간 따라온 오영주 동창은 지회에 참석할 수 있어 미국생활이 더 한층 뜻깊어졌다며 즐거워했다. 한편 한상화(기악 70)동창 자제가 워싱턴 주에서 판사로 임명되어 모두의 축하를 받았고 '10주년 장로합창단기념 음악회' 에 참여하는 오영주 동창의 초청도 있었다. 자주 모이지 못하는 동창회이지만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가능하면 지회 모임만은 모두 참석하여 더 알차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했다.

오타와지회

회장/ 한은신(수학 82)

정기총회에서 한국여성재단 미혼모 돕기 위한 물품 경매

5월 23일 제 11회 정기총회와 더불어 차정자(수학 67)동창의 칠순 축하 파티를 한은신 회장 자택에서 가졌다. 작년 오타와 한인회장으로 많은 노력과 헌신으로 한인회를 수준있는 지도력으로 이끌었고, 항상 지회를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해온 차 동창의 칠순을 맞이하여 축하 잔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엄경자(약학 67)동창의 아름다운 플룻 연주와 모든 동창회원들의 합창으로 축하 자리를 더욱 빛냈다.

한편 지난 해 크리스마스에 처음으로 시작한 한국

여성재단의 미혼모를 위한 기부를 위해 각 회원들이 각자 자기의 물품들을 기부하여 동창회 안에서 경매을 시작하였고 올해 말까지 기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다.

올랜도지회

회장/ 신 혜(섬여 92)

작품을 제작하는 유익한 시간

지회 회원 7명이 5월 모임을 가지고 Keke's 식당에서 브런치를 나눈 후 12시부터 pottery class(도자기에 색을 입히는 공예교실)에 참여하여 각자의 작품을 제작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워싱턴 디씨 지회

회장/ 김지완(도서 89)

'이화 문학인의 모임'과 '이화 골프 클럽' 활성화

지회는 취미별 소그룹 조직 및 활성화에 힘을 쏟았고 그 일환으로 '이화 문학인의 모임 '이화 골프 Club' 을 조직하여 만남을 시작하였다. '이화 문학인의 모임' 은 함계선(피아노79)동창의 주도하에 모임을 가지고 철자법 강의를 들었으며 이덕자(국문 69) 동창 자택에서 소설 〈달라스 블루〉작가와의 만남이란 주제로 모임도 가졌다. 모교 국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덕자 동창은 196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 외에도, 1979년 〈여성동아〉에 장편소설 〈나팔수〉로 당선되었고 이 소설은 영화화되어 상영되기도 한 자랑스런 이화인이다. 5월 9일엔 수필작법이란 주제로 다시 이덕자 동창 자택에서 만남을 가지고 '수필이란 어떤 것인가' 에 대해 강의하였다4월 11일 김지완 회장 자택에서 피크닉을 위한 임원회의를 가져 5월 17일 피크닉엔 70명이 넘는 동창 및 가족들이 모여 대단히 큰 잔치가 되었다. 5월 23일 전 연세대 음악대학 교수인 하재은 박사를 강사로 하여 '문학과 음악' 이란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 날 하 박사는 인생을 회고하며 중요한 시기마다 영향을 끼친 곡들을 선정하여 동창들과 즉석에서 함께 부르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하였다. '이화 Golf Club' 은 손현숙(화학 83)동창의 주도 하에 4월 9일과 5월 14일 만남을 가졌다. 오랜 휴식 기간을 가졌던 이화 골프 클럽의 부활로 많은 동창들은 더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지회

회장/ 정태영(생미 69)

한국문화 일본 전파를 위한 정기모임 가져

6월 3일 긴자에 있는 미카사 가이칸에서 일본지회 동창회 정기 모임을 가졌다. 김정숙 명예교수, 강연숙 선배를 비롯해 전 주일 한국대사의 부인인 심재령 동창 등 13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문화를 일본에 전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과 지회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과 의견들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자카르타지회

회장/ 강혜경(간호 77)

센툴에서 함께한 가족같은 두 번째 모임

지난 4월 17일 센툴 야외에서 2014년 두 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총 4명의 동창과 3명의 게스트가 참석해 주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많은 동창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소수 정예로 나름 가족행사

같은 오손도손한 분위기가 좋았다. 이 날 참석한 게스트의 후원으로 특별히 대나무 통메기구이 점심을 대접받아 더욱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 에드몬톤지회

회장/ 조용옥(국문73)

한인회 노인회 봉사하며 신입 회원 찾기에 주력

에드몬톤지회는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조용옥 회장과 강백희(약학 79) 총무를 중심으로 해마다 여름 바베큐 때 새로운 이화의 식구들을 모으기 위해 신문에 광고하며 신입 회원을 환영하고 있다.

사스카추원강을 끼고 있는 호롤라공원의 자연 속에서 푸짐한 상품과 함께 각자 자신 있는 음식을 한 가지씩 정성껏 준비해 오고 화장단에서 준비한 바베큐와 함께 즐거운 게임과 장기자랑 등, 화기애애한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6개월의 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에드몬톤의 이화 동창들은 음악 미술 문학 분야의 리더들과 한인회 노인회에서 봉사하는 동창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클리블랜드지회

회장/ 김영미(영어교육82)

친교와 유익한 정보를 함께하는 '이화 만남'

클리블랜드지회는 1974년에 처음 설립한 이래 현재 약 70여명의 동창들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이화 만남' 이라는 명칭으로 지회 회원들이 모여 친교와 유익한 정보를 나누며 동창 가족들의 경조사를 돕고 행사를 의논하고 있다.

올해 김영미(영교 82) 지회장을 선출하여 지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었다. 1월에는 인명숙 동창 자택에 모여 연초 행사인 윷놀이를 하며 2014년 이화만남의 활동 계획을 하였고, 2월에는 오랫동안 지회에서 활동하던 남궁희 동창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게 되어 송별 인사를 나누는 모임을 가졌다. 3월에는 이화의 후배들이 교환학생으로 있는 Baldwin Wallace 대학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을 격려하며 후원하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함께 즐거운 오찬을 나누었다.

토론토 지회

회장 홍현정(피아노 82)

정기총회에서 2014 활동계획 세우고 새 회장 선출

3월 3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014년 토론토 지회 활동이 시작되었다. 34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 등에 이어 제 31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홍현정(피아노 82)동창의 인사와 새 임원진 소개가 있었다. 홍현정 신임회장은 지난 2년동안 활성화된 골프교실, 토요걷기회, 성경공부반 그리고 동창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새로 개설된 줌바클래스 등 다양한 동호회 활동에 동창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 밖에도 2014년 활동 계획으로 6월 야유회와 11월 연말파티 행사와 더블어 9월 음악이 함께 하는 이화 미술인들의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녹미회 중심의 이화 미술인들의 작품 전시와 함께 이화 음악인들의 연주, 그리고 가을을 노래 할 싱어롱이 어우러져 이화의 향기가 가득한 멋진 행사가 되길 꿈꾸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필라델피아지회

회장/ 이경희(무용 87)

유익한 강의로 즐거운 모임 가져

4월 지회 모임에서는 문광선 동창의 부군 문대옥 박사(정형외과 전문의)의 어깨 통증에 관한 세미나 강의가 있었다. 즐거운 강의와 맛있는 점심까지 대접받은 선후배 동창들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며 즐거워 하였다. 6월에는 필라델피아 오래된 시내를 투어하며 오랜 역사의 필라델피아 역사도 공부하고 차이나타운에서 점심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콩지회

회장/ 정도경(사회복지 81)

어버이날을 맞아 마련한 건강세미나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홍콩동신교회(담임목사: 김성준)에서 개최된 건강 세미나에 참석했다. 동신교회 담임목사 사모인 임미도(관현악 81)동창의 초청으로 이날 참석한 이화인들은 중년 이후의 건강관리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함께 오찬을 나누며 우의를 돈독히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휴스턴지회

회장/ 백화정(교육심리 87)

지역사회 봉사에 힘쓰며 뜻깊은 모임 가져

3월 모임을 Houston Fine Art Museum의 부속 museum이라 할 수 있는 Bayou Bend Collection and Gardens에서 가졌다. 이곳은 미국 식민지 시대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미국의 장식 미술과 회화,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지회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철쭉이 만발하여 휴스턴의 봄을 맘껏 즐기고 올 수 있었다.

휴스턴 지회에서는 매년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휴스턴 지역 크리스천인 한인 여학생을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4월 모임은 장학금 기금 모금을 위한 거라지 세일로 대신하여 많은 동창들이 물건 기부, 당일 봉사, 그 외 후원금 기부 형식으로 참석해 성공적이고 즐거운 모임이 되었다.

5월 모임은 여학생 2명에게 1,000불씩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올해 선정된 학생들은 뇌성마비를 극복하며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과 휴스턴 최고의 공립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방학 동안 시리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선교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랑스러운 한인 학생들이다.

동창소식

졸업 연도 순 게재

故 김순연(서양화 49)

3월 18일 혜화아트센터에서 작고한 김순연 동창의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김양식(영문 54)

한인문화원장인 김 동창이 5월 7일 인도 시인 타고르의 탄신일을 기념하여 '타고르시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이보영(피아노 56)

7월 2일~6일까지 제11회 한중일 대한민국동양서예대전에서 입선한 이 동창의 작품이 경복궁미술관 전관에서 전시되었다.

신장현(교육 57)

5월 29일 신 동창의 저술 '믿음의 강'으로 이대에서 수여하는 저술상을 수여받았다.

김인자(약학 63)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과 재미수필문학가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동창의 칼럼 수상집 '노마드에 부는 바람' 북사인회가 지난 3월 27일 코리아타운 소재 한미교육원에서 열렸다.

정금숙A(국문 63)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인으로 활동하는 정 동창이 5월 28일 코리아타운 소재 로텍스 호텔에서 제16회 해외문학상 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비버데일 꽃 속에 숨진 벌'로 사랑의 가치를 별과 꽃의 이미지로 그려냈다.

최자영(기독 66)

동화작가인 최 동창이 3월 4일 남산 '문학의 집'에서 창작동화 '큰길 빵가게'로 제17회 한국문학 예술상(아동문학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김윤자(간호 67)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 있는 김 동창이 항암치료의 고통을 딛고 2014년, 70세의 나이에 HIS University에서 교육학(상담학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 숙(영문 68)

이대 명예교수인 서 동창이 '마음은 외로운 사냥군(카슨 매컬러스 지음)'을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이원영(생미 68)

2014 Phiadelphia Flower Show에서 이 동창이 Best in Show Award를 비롯하여 5개 부문에 걸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조한숙(국문 69)

한국수필문학진흥회 회장을 역임하고 '매원수필문학상'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동창이 3월 26일 수필집 '프로네피스가 있는 풍경'으로 제31회 '현대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이강원(신방 70)

5월 28일~11월 9일까지 세계장신구박물관장인 이 동창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현대도자기장신구특별전 '도자기, 피부에 그리다'를 개최한다. 13명의 국제적 현대장신구 작가 소개와 장신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채문경(기악 70)

5월 25일 이대 음대 명예교수이며 'CHAEMS' 대표인 채 동창이 국민일보사 영산아트홀에서 '베네핏 콘서트'를 열고 새로운 'CHAEMS'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CHAEMS'는 클래식과 악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11년 설립, 문화적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 악기 연주, 멘토링을 경험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최민숙(독문 71)

이대 독문과 교수이며 세계독어독문학회 이사인 최동창이 중국 '상하이 홈볼트협회' 주최 국제학회(5월 25일~28일)에 초청받아 '20세기 전반기 한국에서의 독일낭만주의 수용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였으며 5월 29일에는 상하이 동지대학에서 개최된 세계독어독문학회(IVG) 정기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강승애 (서양화 72)

선화랑에서 3월 19일~3월 25일 개인전을 열었다.

이정주(서양화 72)

개인전을 5월 8일~5월 11일까지 광주 무등 갤러리에서 열었다.

유기은(서양화 75)

5월 6일~5월 15일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3전시실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영희(신방 76)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김동창이 '한국전쟁 초기 전쟁소식 전파와 대응의 커뮤니케이션' 논문으로 2014 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 논문상을 수상했다.

조한희(과교 77)

계룡산자연사박물관장인 조동창이 3월 26일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국내 유일의 과학전문 채널인 YTN SCIENCE와 MOU체결을 하였다. 5월 5일에는 다양한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5월 25일 '청운그리기 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임영란(조소 78)

6월 8일~8월 7일까지 우모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리고 있다.

조은미(무용 78)

이대 교수이며 현대무용단 '탐' 의 예술감독인 조동창이 5월 21일 이대 삼성홀에서 '현대무용단-탐 제12회 솔로공연' 을 개최하였다. 마승연, 이혜원, 심영임, 조양희 등 개성있는 무용가들이 자신만의 독창적 무용을 선보였다.

조기주(서양화 79)

2월 27일~3월 9일까지 금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영란A(조소 79)

2월 25일~3월 16일까지 햇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햇불기념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진(도예 79)

5월 2일부터 4일동안 미국 '오레곤 도자기협회전' 에 참석하여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신정순(국문 79)

시카고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신동창의 동화집 'Hello 도시락 편지 (재미마주 학급문고 제10권)'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출판문화산업 진흥원이 주최하는 한국의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되었다.

김미경 (서양화 81)

강남대 교수인 김동창이 미술사 연구는 물론 저술, 강연, 전시기획 등으로 한국 현대 미술사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 제11회 '하종현 미술상(평론가상)' 을 수상하였다.

서동주(도예 82)

개인전을 경인미술관에서 5월 21일~27일까지 열었다.

차명임(서양화 82)

4월 15일 'far beyond 갤러리' 를 오픈하였다.

2014 올해의 '이화언론인상' 수상

4월 22일 이화 삼성 교육문화관 8층 총동창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이화언론인클럽 정기총회에서 이정희(영문 62) 해외문화홍보원 전문위원, CBS의 김현정(불문 00)) 앵커와 손명희(환공 01)프로듀서가 제 14회 '이화언론인상' 을 수상하였다.

왼쪽부터
이정희(영문 62)
김현정(불문 00)
손명희(환공 01)

류시숙(서양화 82)

4월 25일~5월 31일 대구 소나무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열었다.

이혜경(생미 82)

온리 갤러리 이혜경 대표가 제안하여 생활미술과 산업디자인 전공 2학년 재학생들의 아동가구전이 2월 24일부터 3월 8일까지 기획전시회가 열렸다.

조미연(조소 84)

6월 3일~12일까지 개인전을 용인 문화예술원 전시에서 열었다.

남연숙(도예 86)

괌과 한국 문화교류를 위한 남 동창의 개인전이 한국해외교류작가회(Korea's Exchange Art Association)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CAHA(the Guam Council on the Arts and Humanities) Guam 예술협의회에서 열렸다.

유명순(영교 87)

4월 10일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을 역임한 유 동창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JP모건체이스 은행 서울지점 공동지점장으로 선임되었다.

노혜신(도예 88)

5월 21일~27일에 개인전을 열었다.

이희준(약학 90)

6월 2일 서강대 교수이며 희곡작가인 이 동창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회 더뮤지컬어워즈 '극본상(공동경비구역JSA) ' 상을 수상하였다.

차종례(조소 92)

개인전을 4월 10일~27일까지 유아트스페이스에서

열었다.

김시연(조소 94)

6월12일~7월12일까지 갤러리 EM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남준(의학 96)

이 동창이 6월7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한 2014년 국제 간이식학회에서 '라이징스타 어워즈' 상을 받았다.

김순임(조소 02)

개인전을 5월31일~6월29일까지 영은미술관 4전시실에서 열었다.

이재순(조소 02)

6월5일~12일까지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형주(섬예 04)

섬유예술가로 수차례 개인전을 가졌던 김 동창이 7월10일~16일까지 서울 삼성동 '이브갤러리' 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유정(도예 05)

서울대학로 동숭아트센터 꼭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5월3일~7월13일까지 개인전을 가졌다.

장유정(조소 06)

개인전을 5월28일~7월6일까지 갤러리스케이프에서 열었다.

김수연(심리 07)

작년 연말 미국 코넬대 경영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었던 김 동창이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7월 코넬대 경영대학 마케팅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강윤화(국문 09)

전업작가인 강 동창이 소설 '어쨌든 밸런타인' 으로 지난 3월 제7회 '창비청소년문학상' 을 수상하였다.

황희상(무용 10)

젊은 안무가로 주목받고 있는 황 동창이 4월14일 서강대 메리홀에서 제1회 황희상 현대무용공연 '그린 그림자' 를 공연하였다.

임영란(조소78), 김희경(조소79), 나진숙(조소84), 최승애(조소85), 김선영(조소89), 김양선(조소94), 조은희(조소94), 최은정(조소97), 차경화(조소00)

4월8일~13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국제조각페스타 그룹전을 가졌다.

2014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요

동창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대신 아래 계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모교소식

이화 창립 128주년 기념식 거행

5월 30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거행한 '창립 128주년 기념식' 에서 김선욱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역사를 이야기하는 일은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그려보는 적극적인 일로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은 이화의 역사를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라며 "이화가 오늘날 명실공히 세계 최대, 최고 수준의 여자종합대학교로 발돋움한 것은 명성이나 명예를 향해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결과 세계적인 '최대, 최고' 의 여자대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의 현재는 이화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든든한 토대' 라며 이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열어가는 '푯대' 이자 미래 비전인 '글로벌 여성교육의 허브' 로서 이화가 실천해온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했다. 김 총장은 주요 사업으로 ▶세계적인 유수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과 연구 ▶전 세계 다양한 대학과의 협력 ▶과학 이화의 중심으로 지난 4월 개관한 산학협력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이화형 인재 양성을 위한 이화레지덴셜칼리지 ▶이화의 교육경험과 가치를 전세계 여성들과 함께 나누는 EGPP(이화글로벌파트너십프로그램), EGEP(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 이화-KOICA 석사과정 등을 설명하고, "이화는 빈부 · 인종 · 문화로 갈라져 있는 동과 서, 남과 북, 제1세계와 제3세계를 여성들의 연대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연결하는 이화의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김선욱 총장과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윤후정 명예총장, 정의숙 전 이사장, 신인령 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 우복희 이화학당 이사, 정성진 이화학당 이사, 조종남 총동창회장, 각국의 주한대사 및 기관장, 이화 동창 등 교내외 귀빈과 특

히 이화 발전 후원기관인 이화국제재단의 샤론 Z. 레이더 회장 및 이사진 18명이 함께 자리했다.

오종근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념식은 양명수 교목실장의 기도 및 성경봉독, 김선욱 총장의 기념식사와 10년 · 20년 · 30년 근속 교직원 표창, 음악대학 합창단(지도 박신화 교수)과 이화오케스트라(지휘 성기선 교수)의 축가 및 축주가 이어졌다. 올해에는 강석영 교수(도자예술전공), 임정임 직원(시설팀), 임예지 교사(부속유치원)가 근속 교직원 표창자 129명을 대표해 표창을 받았다.

제10회 '이화학술상' 시상식에서는 모교 자연과학대학 수학전공 조용승 교수가 국가 대표 수학자로, 탁월한 연구 결과를 냄으로써 우리나라 현대수학 발전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화학술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총장 초청 오찬은 참석 귀빈과 이화의 후원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명수 이사장의 감사패 수여 및 김선욱 총장이 이화국제재단 샤론 Z. 레이더 회장에게 전달한 감사패 수여식이 있었다.

모교 제15대 총장에 최경희 교수 선임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은 4월 24일 이사회를 열고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총장 후보 중에서 최경희 교수(과학교육과)를 모교 제15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제15대 총장의 임기는 2014년 8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최 교수는 모교 과학교육과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을 졸업하고 미국 템플 대학(Temple University)에서 물리학 석사, 과학교육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모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는 모교 사범대학장이자 교육연수원장, 영재교육원장, 글로벌 STS교육연구소장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제7기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 환경부 제5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환경정책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이화가 열어가는 통일의 비전, 제1회 '윤후정 통일포럼' 개최

6월 25일(수) ECC 이삼봉홀에서 제1회 '윤후정 통일포럼–한반도의 통일, 동북아의 평화'를 개최했다.

'윤후정 통일 포럼'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헌법학자이자 모교의 총장, 이사장으로 한국 여성과 이화를 위해 60여 년간 헌신한 윤후정 명예총장의 뜻에 따라 사회 발전을 위한 깊은 성찰과 논의의 장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함경남도 안변군 출신으로 직접 월남을 경험한 윤 명예총장은 2013년 이화여대에 통일 논의를 위한 장 마련을 제안하며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학교가

이를 받아들여 포럼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이번 포럼은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힘 있는 나라', '수준 높은 문화국가'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윤 명예총장의 오랜 소망의 발현이자, 북한 지역과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의 실현 및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질서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에 의의를 두고 개최되었다.

윤후정 통일 포럼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모교 통일학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조동호 통일학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선욱 총장의 인사말,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축사, 윤후정 명예총장의 말씀으로 이어졌다.

윤후정 명예총장은 "우리 민족 최대 과제인 분단 극복과 민족 재결합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기회가 된다면 통일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자 소망해왔다"며 포럼 제정을 위한 기금 출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젊은 세대들이 뜻밖에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간다는 보도를 보고 안타까웠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차세대 통일 리더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1998년 북한학 협동과정 시작, 2000년 학부 과정에 북한학 연계전공 개설, 2013년 북한학 협동과정의 북한학과 승격 등 통일학 분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이화여대가 과거 이 나라 민족의 어머니, 역사의 어머니 역할을 해온 만큼 미래 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이어받아 조국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눠진 한 형제를 통일케 하는 우리의 소망을 감당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선욱 총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화여대가 지난 128년 동안 한국 여성 역사를 이끌어왔듯이 이제는 한반도 통일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가고자 한다"며 "다양한 주제 연구로 북한 · 통일학 분야의 상당한 학문적 토대를 갖춘 본교에서 윤후정 통일 포럼을 시작으로 통일 이슈와 아젠다가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통일 관련해 논의 준비 과정은 물론 실제 진행 과정에서도 여성 참여가 배제돼 젠더 관점이 결여됐다는 반성이 있었는데 이화여대 윤후정 통일 포럼은 모든 통일 이슈에 젠더 관점이 통합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럼 개최 의의를 밝혔다.

개회식에서는 축하 공연과 연주도 마련됐다. 공연으로는 통일의 염원을 담은 'Sand Art'가 펼쳐졌으며, 이화앙상블의 축주 'Mozart divertimento no.1- Allegro, Andante, Presto'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고향의 봄'이 연주되어 '윤후정 통일 포럼'의 개막을 축하했다.

이어 통일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경륜을 인정받는 토론자들이 초청돼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도하는 토론을 펼쳤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조형 모교 명예교수, 정세현 원광대 총장(전 통일부 장관),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평화와 통일의 조건 ▷평화와 통일의 구축 ▷미래의 준비라는 소주제에 따라 2시간 동안 활발한 담론을 진행했다. 윤후정 통일 포럼은 지속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올해부터 매해 개최될 예정이다.

어서린 커즌 WFP 사무총장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

5월 23일 중강당에서 어서린 커즌(Ertharin Cousin) 유엔세계식량계획(UN World Food Programme) 사무총장에게 모교의 명예 정치학박사학위가 수여되었다.

수여식에서 김선욱 총장은 "어서린 커즌 사무총장은 식량안보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전 세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여성 역량강화를 통한 빈곤 극복에 앞장서고 있어 명예 정치학박사학위를 수여키로 했다"며 "특히 한국에 있어 유엔세계식량 계획은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하고 있는 주요 기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어서린 커즌 사무총장은 미국 국적으로 미국 국제식량농업개발위원회 이사, 미국 최대 기아구제기구의 최고운영 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약 30년간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에서 세계 기아, 식량, 재난 대응 분야의 많은 업적을 쌓았다. 2013년 포브스 잡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 49위에 올랐고 2013년 미국 경제매체 CNBC가 뽑은 세계 10대 여성 정책입안자, 2014년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포함된 바 있다.

커즌 사무총장은 수락사를 통해 "한국 최초의 여성 고등교육기관으로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화여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며 "이화는 여성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삶은 물론 가족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킨 학교로 그 중에서도 이화글로벌임파워먼트프로그램(EGEP)과 같은 세계 여성 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이화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날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에는 교내 주요 인사와 은고비 키타우 주한 케냐 대사, 프랑수아 봉땅 주한 벨기에 대사, 김형철 공군사관학교장, 유엔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 직원 및 관계 기업 임원, 이화-KOICA 국제학 석사 과정생을 비롯한 본교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수여식 후에는 WFP가 추진 중인 '제로 헝거 챌린지(Zero Hunger Challenge)' 지지 서명식도 개최됐다. '제로 헝거 챌린지'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우리 세대에 기아를 끝내자'는 슬로건 아래 2012년 설립, WFP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세계적 기아퇴치 운동이다. WFP가 '제로 헝거 챌린지' 지지 서명식을 갖는 것은 국내에서는 모교가 처음이다.

이화솔베이 연구센터 오픈

한국 최초 글로벌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의 결실인 이화 · 솔베이 연구센터의 개관식이 6월 3일 산학협력관 앞 뜰에서 개최됐다.

이화 · 솔베이 연구센터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 날 개관식에는 김선욱 총장, 장피에르 클라마디유 솔베이 그룹 회장, 최진호 대외부총장, 김재홍 산업통상부 제1차관, 프랑소와 봉평 주한 벨기에 대사를 비롯 각국 대사와 본교 관계자,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솔베이 그룹 및 한국 솔베이에서 온 임직원이 함께 자리했다.

김선욱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화와 솔베이의 협력은 세계적인 다국적 해외기업이 국내 대학에 글로벌

R&I센터를 설립한 첫 사례로, 대표적인 산학협력의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며 "한국 산학협력의 상징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함께 하는 이화와 솔베이 두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기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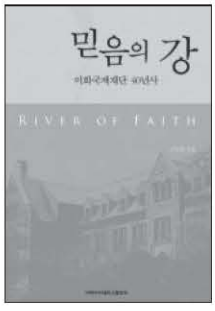
장피에르 클라마디유 솔베이 그룹 회장은 "솔베이는 실험실을 넘어 고객과의 협력은 물론 학계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열린 혁신을 추구한다"며 "이화는 최고 수준의 화학 분야 교수진과 학생들을 보유한 엘리트 학교이자 새로운 변화를 일구어낸 역사의 현장으로 이화와 협력하여 오늘 이화 · 솔베이 연구센터를 시작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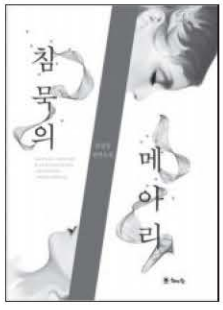
오찬행사에서 가진 감사패 수여식에서는 클라마디유 회장이 모교 김선욱 총장, 최진호 대외부총장, 신경식 기획처장, 남석진 시설팀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글. 이대홍보처 제공(총동창회 홍보부 정리)

동창이 펴낸 새책

졸업 연도 순 게재





이영자(작곡 54)
이영자 지음/ 문학관
불사조의 노래
음악을 만들어낸 작곡가가 악보가 아닌 글씨로 써낸 삶과 음악의 기록. 수필의 기존관념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한 자서전적 산문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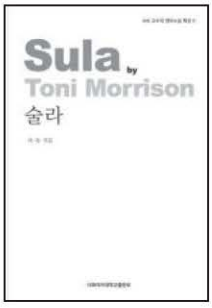
신장현 (교육 57)
신장현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믿음의 강 : 이화국제재단 40년사
1970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재정적 · 문화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설립된 이화국제재단의 역사를 정리해 펴낸 'River of Faith(2012)' 의 한글판. 이화국제재단은 국제 연대를 통해 이화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김활란 박사의 뜻을 받들어 동창생들과 이화를 돕고자 하는 미국인들, 감리교 지도자들이 모여 미국 내 설립한 비영리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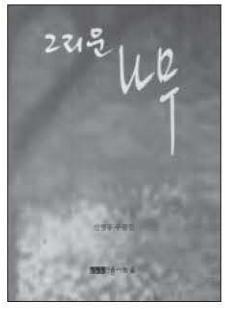
김영교(영문 63)
김영교 지음/ 서울문학사
흔적
흔적, 주름과 날개, 뒷모습, 가을 풍경, 겨울을 잠자던, 볼디 산, 여행자, 내 안의 정원, 바다에 가면, 나무가 말을 한다, 선물, 49제에, 국화차 등 일상의 이야기들이 시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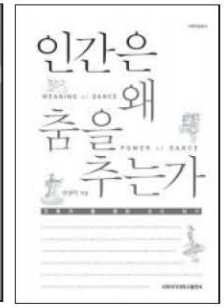
김영강(국문 66)
김영강 지음/ 해드림출판사
침묵의 메아리
'소설 속의 소설' 형식을 통해 첫사랑의 흔적, 상처와 비극을 더듬어가는 과정을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롭게 전개시킨 소설. 평범하지 않는 인물들과 기묘한 인간관계의 얽힘, 조용하게 고조되는 긴장, 예측 불허의 반전 등이 있다.

김행숙(교심 66)
김행숙 지음/ 책만드는집
멀고 먼 숲
저자의 시는 순수 서정시이면서 거의 절대적인 '쉬움'을 추구하고 있다. 너무 쉬워 소통에 그 어떤 장애도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 잔잔한 호수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 같은

김선희(신방 67)
김선희 지음/ 드림북
우리가 몰랐던 창세기
목사인 저자가 처음으로 펴낸 창세기 이해를 돕는 길라잡이 책. 독자들에게 작은 말씀의 벗이 되었으면 하여 마치 요게벳이 갈대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 강물에 띄워 보내듯 조심스럽게, 조금은 떨리는 심정으로 세상에 선보이고 있다.







서 숙(영문 68)
서숙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술라 〈서숙 교수의 영미소설 특강 5〉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토니 모리슨의 대표작 '술라' 의 강의록을 책으로 펴낸 것. 흑인여성 술라가 1920-30년대 미국 사회에, 그리고 현재의 우리에게 던지는 파문과 그에 대한 성찰이

심보순(영교 69)
심보순 지음/ 북랩
언덕 위의 오후
시대와 공간을 넘어 문학 작품 속의 장소, 인물과 교감하면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책. 이 책에 등장하는 스칼렛 오하라, 빨강 머리 앤 등 문학 작품 속 익숙한 인물들의 이름은 왠지 모를 그리움과 두근거림을 안겨주며 상상하는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힐링여행을 선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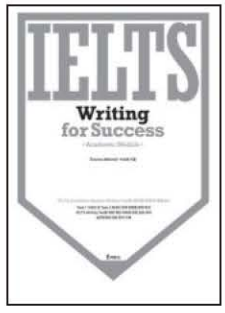
신영봉(교공 69)
신영봉 지음/ 도서출판 시한울
그리운 나무
'그날이 오면', '찬물 속의 송어', '노아메긴닥', '그리운 나무', '내 생애의 아이들'등 총 5장으로 구성된 수필집. 잔잔하고 편안한 글과 저자의 특유의 감성이 잘 묻어나고 있다.매우 흥미진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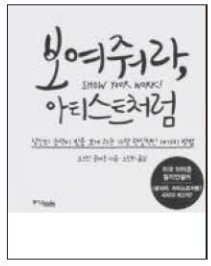
우애령(독문 69)
우애령 지음/ 하늘재
깊은 강
격동의 한국사와 파란만장한 가족사가 흐르는 장편소설. 조부모-부모-나에 이르는 3대의 가족사를 파상적으로 풀어내고, 자연스럽게 20세기 한국 역사의 강물에 새겨진 운명들을 조망하고 있다.

우혜전 (신방 74)
우혜전 지음/ 헤이즐넛
리어카 할머니
저자가 7년 동안 쓴 칼럼 33개를 묶어 낸 전자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일어났던 사회현상에 대해 썼던 글을 주제별로 모았다. 위로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궁금해질 때 들추어 보면 좋다.

신상미(무용 77)
신상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인간은 왜 춤을 추는가
인류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는 문화이자 예술이라 할 수 있는 '춤' 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연구서. 이 책은 일반인도 인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춤의 의미와 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동 창 이 펴 낸 새 책





김훈순(신방 78) 나미수(신방 89)

김훈순 나미수 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다시 보는 미디어와 젠더

오늘날 더욱 다양해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재현된 젠더의 모습을 바로 보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이론과 지식, 이슈를 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움이 될 만한 주요 논점과 시각을 제공한다.

유선영(신방 79) 이희은(신방 92)

유선영, 이희은 외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지금, 여기, 여성적 삶과 문화: 위태로운 시대와 그녀들의 일상적 응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여성적 삶의 모습, 문화적 가치, 사회적 실천의 흐름을 진단하고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한 책으로 2000년대 한국에서 여성의 삶과 복잡하며 유동적으로 펼쳐지는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소영 (영문 91)

이소영, Terence Mitchell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IELTS Writing for Success(Academic Module)

이 책은 IELTS Academic Module Writing 시험에서 고득점을 올리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위해 만든 교재이다. 특히 다양한 연습문제를 충분히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노진희 (영문 00)

오스틴 클레온 지음 / 노진희 옮김 / 중앙북스

보여줘라, 아티스트처럼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10가지 방법을 담은 책. 오스틴 클레온의 후속작으로,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이를 꽁꽁 숨기고, 대중과 공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김시정 (생명과학 03)

김시정 지음 / 마음세상

공작 꼬리깃털 한가닥에 스친 바람 한 줌

20대 후반을 건너는 여정에서 걷어올린 청춘의 이야기. 스물일곱에서 서른하나 사이에 빚어진 시들. 감성, 방황, 고독, 자연에서 찾는 위로,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를 시로 표현하였다.

양윤선 (언론정보 09)

양윤선 글 / 시공사

나를 위한 최소한의 정치 상식

정치를 제대로 알기 위한 첫걸음으로 거창한 이론이나 학자들의 고견, 극단으로 치닫는 이념도 과격한 선동도 없다. 제대로 알아야 비판도 할 수 있다는 국회에 대한 '안내서'.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후원 신청서

총동창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이화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래 약정서에 동창 여러분의 뜨거운 '이화사랑'을 담아 총동창회 팩스 02-327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기관 · 단체 정보

성명(상호명) □익명 희망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본교 관계	□ 동 창 전공 :	입학/졸업년도
	□ 학부모 자녀 전공 :	입학/졸업년도
	□ 교직원 대학/처 과	
	□ 기업/단체	
	□ 기타	
연락처	우편물 수령 주소 (자택 / 직장)	
	전화 (자택) :	(직장) :
	E-mail :	휴대전화 :
직장정보	직장명 :	소속 : 직위 :

약정정보

약정금액	일금 원( )	
기부용도	□글로벌여성교육허브기금 ( )	□이화 캠퍼스마스터플랜기금 ( )
	□이화 장학기금 ( )	□기타 후원용도 ( )

납부방법

일시납	년 월 일	신한 140-001-081822 (예금주 : 이화학당)	외환 048-22-01036-4 (예금주 : 이화학당)	우리 107-04-102624 (예금주 : 이화학당)
분납	납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회) 월분납액 : 원		
	납부 방법	□자동이체(CMS)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일: □15일 □30일
		□무통장입금		
		□교직원 급여공제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조성에 위와 같이 기부(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전액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상단 익명 희망에 체크해주세요.
□ 정보동의 이화여자대학교 발전기금 참여신청서에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문의:이화여자대학교 대외협력처 Tel.(02)3277-2926, 2927, 3975 E-mail ewha21@ewha.ac.kr